

# 독립 정신

통권80 2015년 3,4월호



권두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과와 법치주의\_한상희

특별기획 역사는 우리의 집단자서전입니다\_도종환

친일파와 그 후손들(2) 언론권력을 장악한 친일의 무리들\_최광웅

김정록의 회고/제2부\_겨레는 살아있다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2)\_김정록

기고 1 백세청풍(百世淸風) 일송 장현식 선생을 그리며\_장상록

기고 2 3·1절 96주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해본다\_윤경로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부산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통 소고\_강대민

백년편지 민족교육의 선구자 나의 아버님 “학산 윤윤기” 선생을 그리며\_윤종순



유관순(柳寬順 : 1902 ~ 1920)

오오 하나님ishi어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왜(倭)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유관순(柳寬順)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일찍부터 개신교 가풍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유관순 열사는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문회(以文會)를 중심으로 오후 3시만 되면 모두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시국토론회 및 외부 인사 초청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도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서거하자 학생들은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으며, 유관순 열사는 서명학·김복순·김희자·국현숙 등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결성하여 소복을 하고 기숙사를 빠져나와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 행렬에 합류하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학교로 갈 수 없게 된 유관순 열사는 13일 기차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내놓으며 병천 시장에서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상의하였다. 1919년 4월 1일, 부친 유중권·조인원·유중무 등과 함께 병천 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이날 유관순 열사의 부모를 포함하여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였다. 유관순 열사는 주도자로 체포되어 공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공주 영명학교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된 친오빠 유우석을 만나기도 하였다.

유관순 열사는 3년형을 언도받았으나 함께 재판 받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고하지 않았다.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는 이신애,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하였는데, 유관순 열사는 일제의 무자비한 성고문과 가혹한 여러 만행들을 이기지 못한 채 병을 얻어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화학당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 열사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화학당 교장 월터(Miss Jeanette Walter)는 이 사실을 미국 신문에 알려 세계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결국 일제는 시신 상태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장례는 극히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시신을 인도하였다.

정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독립정신

2015 3\*4

통권 80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26



34



52

- 04 권두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과 법치주의  
| 한 상 희
- 08 특별기획  
역사는 우리의 집단자서전입니다  
| 도 종 환
- 14 친일파와 그 후손들(2)  
언론권력을 장악한 친일의 무리들  
| 최 광 웅
- 20 김정록의 회고  
제2부. 겨레는 살아있다.  
2-2.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  
| 김 정 록
- 43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부산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통 소고  
| 강 대 민
- 51 기고\_1  
백세청풍(百世淸風) 일송 장현식 선생을 기리며  
| 장 상 록
- 56 기고\_2  
3·1절 96주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해본다  
| 윤 경 로

- 59 백년편지  
민족교육의 선구자 나의 아버님  
“학산 윤윤기” 선생을 그리며  
| 윤 종 순
- 64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용암처럼 끓어오른 탐라의 횃불 ‘김옥련’  
| 이 윤 옥
- 66 영화읽기  
영화 <허삼관>  
역사에 대한 번안 작업  
| 이 두 희
- 70 임정서가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  
겹겹  
구한말 사대부들의 편지  
서간도에 들꽃 피다. 5  
갑오동학농민혁명 답사기  
| 편집부
- 82 독립정신 이모저모
- 89 광복 제70주년 기념 사업 계획 및 후원 안내



63



67



86



##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과 법치주의



한 상 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오.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오.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대한민국 원년(1919) 11월 민족대표의 이름으로 독립신문에 수록된 임시정부수립 축하문의 한 구절이다. 당시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되며 그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임시헌장 제1조에서 선언되었던 민주공화제의 이념이 의연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기습적으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이런 누대의 명령을 일거에 허물어뜨렸다. 국가권력이 법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통치체제를 전제정부라고 한다면, 이 결정은 법과 상식 자체를 심판하고 폐제(廢制)해 버리는 그 전제정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지배에만 의존하는 정부란 어쩌면 다수의 힘에 의한 전제정부가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미국의 연방헌법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 다수의 지배로 환원되면서 이런 식의

폭력적 지배체제로 변질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다수의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는 장치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삼게 된다. 설령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려 훼손할 수 없는 어떤 고차의 가치들을 설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관용의 원칙은 그 대표적인 이념이다.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그때 그때의 다수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해산결정에서 이를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였다.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력화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현재는 이런 립 서비스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 헌정질서의 불행이 암중처럼 터져난다. 현재의 결정은 줄곧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라는 망령이 사로잡혀 있다. 과거 유신체제에서 상용되었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짓된 구호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남북한의 대립과 그로 인한 체제위기의 상황을 들먹일 뿐이다. 우리의 헌정질서는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아닌 그저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 법률에 움매인 전제정일 따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후들은 결정문 도처에서 나타난다. 정치적 수사로도 흔히 사용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민중주권”, “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체제전복의 낙인을 찍었다. 고 리영희선생이 말한 “조건반사의 토끼”가 어떤 사상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용어를 들으면 반드시 어떤 스테레오타입적인 관념을 떠올리게 만든 냉전·반공체제와 연관된다면, 이 현재의 결정은 또 다른 유형의 “조건반사의 토끼”가 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 이 결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숨겨진 목적, 주도세력론, 퍼즐 맞추기 등의 논법들은 이런 억지를 위한 도구였다. 독일공산당해산판결에서 사용되었던 숨은 목적론은 독일공산당의 공식목표였던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는 것이 당시 독일공산당의 독일재무장반대와 독일재통일추구를 위한 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사건의 경우 현재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느닷없이 끌고 와서 통합진보당과 이것을 어떻게든 연결하기 위한 고리로 이 세 가지 논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이 결정문은 도처에서 이어령 비어령 식의 논리로 가득하다. 수 만 명의 당원을 가진 공식정당의 활동을 40명도 채 안 되는 그 “주도세력”들의

행태로 바꾸어 놓고, 이들의 과거 행적-그것도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행적이 대부분이다-들을 이리저리 잘라내고 다듬어서 필요한 것을 끼워 맞추는 퍼즐 맞추기의 공법을 사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퍼즐조각을 조합하여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그림부터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는 퍼즐조각을 찾거나 혹은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현재가 퍼즐조각을 변형하거나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넣는 극도의 편법이 횡행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이 결정은 아무리 읽어도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헌법을 끌어다 맞추는 모습만 떠오른다. 헌법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헌법을 수단처럼 동원한 것이다. 그러기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현재의 해산결정은 다원성과 관용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인 동시에,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이기를 거부한 우리의 헌법체제 자체를 유린한 것이 된다. 헌법에 의해 탄생된 현재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을 침탈하고 유린함으로써 헌법을 심판해 버리는 패륜이 여기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산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연성쿠데타라고 지칭함은 이 때문이다. 실제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는 조봉암의 진보당이 행정처분으로 해산되고 사법살인이 그 뒤를 이었던 자유당정권 말기의 폐악들을 막아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는 이 제도의 칼날을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에다 꼽아버렸다.

이 결정 후, 한 달여 만에 대법원은 이석기 전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R.O라는 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현재의 해산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를 부인해 버린 것이다. 이어 현재는 그 결정문의 심각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개정 결정까지 하였다. 이 해산결정은 나오자마자 그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기구한 운명에 봉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결정이 우리에게 엄청난 먹구름을 드리운다. 그것은 87년 민주화 이래 진보세력이 제도정치권으로 적극 편입되면서 야기되었던 이념적 긴장에 대한 보수-수구-적인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현상은 이를 잘 수행한다. 정치영역에서의 페어플레이를 담보해야 할 법이 사법 관료들의 손아귀에 장악되면서 정치 자체를 지워버리는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법치가 유린되는 동안 아(我)국민들은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 아니라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가 되기를 또 다시 강요당하게 된다.

현재가 이 결정에서 말한 입헌적 민주주의와 기미년 임시헌장- 및 현행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실제 임시헌장에서 사용한 민주공화제라는 말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용어였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을 대한인민 전체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우리 선열들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수호해야 할 현재는 더 이상 헌법의 자식이기를 거부한다. 아니 현재를 앞세운 집권세력 자체가 이를 조장하거나 혹은 그 헌법유린의 현실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명령을 외칠 수밖에 없어진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가 투표로 해야 한다는 외침은 이제 현재와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이 행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구호로 바뀌어야 할 판이다. 기미년의 3·1혁명이 내세웠던 민주공화제의 이념이 이 지점에서 새삼 절실해진다. 





# 역사는 우리의 집단자서전입니다



도 종 환  
시인,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 서언에서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의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사라져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존재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나라를 빼앗겼어도 민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목숨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함께, 그분들이 남겨준 민족정신과 우리 역사는 남아있습니다.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집단 자서전을 쓰는 것’이라고 키스 젠킨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단 자서전이라고 할 수 없는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맞지도 않는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배울 고등학교 교과서로 버젓이 출간된 것입니다. 이

교과서는 교학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민족’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서문 어디에도 민족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이란 용어만 곳곳에 반복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필연론’, ‘독재필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그 정점에 두고 역사 교과서를 기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이들은 나머지 교과서를 친북 좌편향 교과서라고 공격하고, 지금까지의 교과서 역사 서술을 자학사관이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자학사관을 벗어나기 위해 4.3사건을 왜곡하고, 5.16군사 쿠데타와 1965년 한일협정을 미화합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칭송하는 것도 모자라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승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 4월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서훈을 받은 최초의 인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시영 초대 부통령입니다. 이들은 1등 건국공로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 이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자학사관을 극복한 대한민국 정통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친일잔재가 극복되지 않았고 친일을 한 자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학사관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가 극복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친일의 역사를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역사관이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일까요? 친일의 역사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째서 자학사관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쓰는 ‘자학사관’이란 용어를 그대로 빌려다 쓰면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부실한 서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천 건이 넘는 오타자와 비문 그리고 인용오류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교과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극우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보다 더 친일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전후를 거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서술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건청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 낭인 가운데 고바야카와 히데오란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미우라 공사와 함께 시해음모를 꾸미고, 자객들을 조직하고, 명성황후가 머물던 건청궁을 사전답사하고, 낭인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시해에 직접 가담한 자입니다. 이 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려는 음모에 참여하게된 것에 감격하고 시해가 끝난 뒤에 행복해 하는 영웅담을 『민후조락 사건』이란 회고록으로 엮었습니다.

이 자의 회고록이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고 정부 관료들의 망언은 도를 넘고 있는데 우리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의 글을 교과서에 실어놓은 것도 모자라 ‘생각해 보기’란 과제를 통해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만약 일본 역사교과서에 실렸다면 한·일간의 국교단절을 포함한 심각한 외교 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자의 글을 어떻게 교과서에 실을 생각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식민지 필연론으로 근대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포로 위협해 체결된 ‘강화도 조약’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서술한 내용들은 이 교과서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갖게 되었고 근대적인 건축에, 근대적인 위생관념을 배웠고, 근대적인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생산량도 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래서 쌀도 수출했다고 기술합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고 기술해야 함에도 토벌 또는 소탕했다고 기술했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피격’이라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일본의 시각,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피지배자였고, 타자였습니다. 억압받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수탈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고, 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해야 합니까?

국회 상임위가 열렸을 때나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수없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저를 포함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2013년 6개월여를 싸웠습니다. 친일 친독재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검정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답변을 회피한 채 다른 교과서들은 좌편향이라고 맞섰습니다. 친일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편향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를 희석시키려고 이념논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주어진 질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분하고 허탈해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봐주려고 했던 교학사 교과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싸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국 2,200여개 고등학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2013년에 1개교 2014년에 2개교 총 3개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층이 그렇게 봐주고 도와줬던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자 정부는 슬그머니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지난해 좌우 역사논란 등 검정제 교과서 파동을 겪은 마당에 국가가 책임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일한 역사관을 갖는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역사학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운영됐던 때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제정한 2년 뒤인 1974년 ‘국적 있는 교육,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을 주창하면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던 것입니다.

당시 역사학계가 반대했던 논리는 국가가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요함으로써 다양한 역사인





식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찬양하는 수단으로 국정교과서가 활용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국사 교과서는 신군부를 찬양하는 책자로 전락했고, 유신체제는 장기집권의 음모로 규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 때 배운 유신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정책이었던 것이 중고교에서는 장기집권의 음모였다고 배우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2007년에서야 다시 김인정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는 군사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됐고, 군사정부가 소멸되면서 국정제가 폐지되는 길을 밟아 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로 표현하면 비정상적 정상화가 국정에서 김인정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국정제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이 교육부 즉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집필을 완료해도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하고 재집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정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집필과정에서 역사적 오류가 걸리지 않은 채 발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발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적 오류가 학생들에게 주입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행된 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를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현재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곧 전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설명하면서 저격의 대상이 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문제가 됐던 ‘의병토벌’, ‘일제 강점기 쌀 수출’이란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고,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승리한 일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 제국 말기 일제의 국권 침탈을 연표로 보여주면서 ‘경찰권 장악’, ‘외교권 장악’, ‘사법권 장악’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서술의 주어가 일본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한국 교과서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오류들이 밝혀진 것 만 350여개나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발행체제는 크게 국정제, 검인정제, 자유발행제로 운영됩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절반인 17개국이 이미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제로 발행하는 나라는 몇 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베트남 북한 등의 국가가 국정제라고 알려졌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교과서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폐해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를 모범사례로 삼아 검인정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검인정제에서 국정으로 전환을 시도하다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정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은 검정제를 동독은 국정제를 택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국정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퇴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하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한다”고 조지오웰은 말합니다. 현 정권은 과거를 통제하고 역사를 바꿔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통제해서 보수 세력의 지지층으로 편입하려 합니다. 그래야 보수 세력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장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 싸움,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족을 버리고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인 역사교육을 온몸 던져 막아야 합니다. 

## 언론권력을 장악한 친일의 무리들



최 광 응  
정치데이터연구소장

지난해 말 한국ABC협회가 2013년 현황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75만부의 공식 발행 부수를 가진 국내 최대 신문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중앙일보 126만부, 동아일보 90만부 등의 순이었다. 유료 부수에서도 조선, 중앙, 동아가 각각 129만, 81만, 70만부 순이었다. 이렇듯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 언론권력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친일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 신문들이다. 3.1운동을 겪은 일본제국주의는 이듬해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발행을 허가한다.

<조선일보>는 친일상공인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예종석 발행인과 조진태를 초대 사장으로 내세워 가장 먼저 창간했다. 그러나 자금력 부족으로 이내 창씨개명 1호로 유명한 대표적 친일파 송병준에게 넘어갔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좌파와 우파가 연

합한 최대 독립운동조직 신간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홍명희와 박헌영 등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입사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까지 띠었다. 반일 논조로 인해 정간과 압수처분, 발매금지 등의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1920년 8월 27일 미국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던 시민들에게 일경이 탄압을 가하자 이를 비판한 '자연의 화(化)'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고,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으로 항거한 강우규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 기사를 게재하자 총독부로부터 처음으로 정간 7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중국 산둥지방으로 일본군이 출병한 사실을 비난한 1928년 5월 9일자 사설이 문제가 되어 정간 133일 처분을 받기까지 1920년대에 4차례에 걸쳐 총 240일간 정간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조만식을 거쳐 방응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1932년 영업국장으로 입사한 방응모가 이듬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 후 한일 학생의 교육차별을 비판하는 논설 '교육필화'로 인해 기사가 압수되기도 했지만, 방응모의 본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신문의 논조는 사실상 바뀌게 된다.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춘원 이광수를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하여 본격적인 친일행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6.25 동란 중 납북된 방응모는 일제 말기 언론인으로서 총독부체제에 협력한 다수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1933년 3월 고사기관총 구입비용으로 거금 1,600원을 일군에 헌납한 것을 시작으로 1935년 친일 잡지 <조광>을 창간하였고, 1937년에는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일제가 중국을 쳐서 극동평화를 지키려고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1942년 6월에는 '징병령 실시'에 일층 더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조광>에 발표하였다. 애국금차회(193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 임전대책협의회(1941), 조선임전보국단(1941) 등 극렬 친일단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방응모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유족 및 조선일보 측에서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그는 후사가 없어서 친형의 둘째 아들 방재운을 양자로 입양시켰다. 방재운은 방우영, 방일영 형제의 아버지이다. 현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는 방일영 前회장의 아들 방상훈이 맡고 있으니 3대 경영 세습인 셈이다. 방상훈은 일제 말기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친일인사 윤치호의 증손녀 윤순명과 결혼하였다. TV조선 마케팅실 실장을 맡고 있는 방상훈의 차남 방정오는 희대의 사학비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장

녀 이주연과 결혼했다. 친일파 후손과 사학비리자 간 혼맥인 것이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한 달 뒤 송진우, 양기탁, 유근, 장덕수, 김성수 등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3대 사시로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내걸었다. 초대 사장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조선인 최초로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직선의원에 임명된 바 있는 박영효였고, 초대 주필은 김성수였다. 이후 김성수는 2대 사장에 취임한다. 〈동아일보〉 역시 창간 초기에는 여러 차례 강제 정간의 압력을 당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초반 조선총독부의 무단 통치를 비난한 기사가 수시로 문제가 된 것이다. 1920년 9월 25일 일본 3중 신기를 비판한 9월 24일과 9월 25일의 기사 내용이 말썽이 되어 제1차 무기정간 처분을 당한다. 1926년 3월 7일 국제농민본부에서 ‘조선농민에게’ 보낸 3.1 만세운동 기념 기사들을 게재하였다가 제2차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1928년 4월부터는 특집 기사를 내어 문맹퇴치운동을 제창하였으나, 반일감정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총독부의 검열과 금지로 중단되었고, 3년만인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을 적극 홍보, 보도함으로써 문맹 퇴치 운동을 다시 전개한다.

〈동아일보〉는 창간 이후 1920년~29년까지 9년간 280일간의 정간처분을 받았고 300회의 차압과 판매금지처분을 당했다. 해방 직후 조선일보의 방응모가 김구의 한국독립당을 지원한 반면, 동아일보는 우익 정당 한국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논조를 보였다. 김성수는 신익희의 대한국민회와 통합한 민주국민당 최고위원(당대표 격)을 거쳐 보궐선거로 국회 간선에 의한 제2대 부통령에 선출되기도 한다.

3.1운동을 전후해 군자금에 대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던 김성수도 항일독립운동의 온상과 불순언론으로 지목된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1935년 한때 한강에 투신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 총독부의 가혹한 민족말살정책으로 탄압을 받으면서 동아일보는 친일의 길로 접어든다. 특히 김성수는 1942년 전후로 완전히 친일파로 변절했다.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폐간되었다가 1937년 6월 복간된 동아일보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지원병을 적극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기사와 글이 여러 번 올라왔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김성수는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시국강좌 담당 및 연설을 하였고 경성군

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거금 1,000원을 헌납했다. 이듬해에는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및 이사를 지냈고, 이밖에도 국민총력조선연맹 발기인 및 이사(1940), 국민총력조선연맹 총무위원(1943), 흥아보국단 결성 준비위원(1941), 조선임전보국단 감사(1941) 등으로 활동하면서 1943년~45년 기간 동안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잡지 〈춘추〉 등에 학병제와 징병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총 25편의 논설 글 및 사설을 기고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언론계 친일파로 수록되었다.

그의 남동생 김연수는 학교 경영 및 언론사 운영 등으로 사회 활동에 나선 김성수를 대신하여 경성방직의 경영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가까이 지냈고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김연수는 해방 후 삼양사를 설립한다. 그의 아들 김상협은 전두환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상협이다.

동아일보는 김성수를 거쳐 그의 장남 김상만과 장손자 김병관, 그리고 증손자 김재호에게 경영권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수의 2남 김남은 윤보선 대통령의 비서를, 동아일보 부장 출신 4남 김상홍은 야당 소속으로 5~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5남 김상기의 아들 김병국은 고려대 교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성수와 재혼한 이야주는 3·1 항쟁이 일어나자 정신여학교 졸업반 신분으로 만세운동에 가담, 6개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성수의 문병이 인연이 되어 훗날 재혼이 이루어진다. 그녀는 사후인 2005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기막힌 굴곡의 역사가 이렇듯 한 집안에도 서려 있다.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이 흥진기를 시켜 창간하였고, 1999년 계열 분리 이후 독자 법인화한다. 이후 홍석현이 인수하여 2003년부터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1964년 설립된 중앙라디오방송의 초대 사장 홍진기는 친일 부역자이다. 그는 경성제대 법



학과를 나와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42년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낸 전력으로 인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창씨개명은 德山進一이다.

홍진기는 법무장관 시절인 1959년 죽산 조봉암 처형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명 다음날 죽산은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내무장관 때인 4.19혁명 당시에는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수도권에서 사망자만 200명 이상을 불러온 인물이었다. 그는 혁명 직후 이승만 독재정권 부역행위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가석방되었다. 이 때 손을 써서 그를 빼내 준 사람이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 뒤 이 회장은 홍진기로 하여금 1964년 중앙방송(동양방송)과 이듬해 중앙일보를 창간한다. 이어 두 사람은 3남 이건희와 장녀 홍라희를 결혼시켜 사돈이 된다. 즉 이건희가 홍석현의 매형인 것이다. 홍라희는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홍진기는 박정희 쿠데타의 주역인 신직수와도 사돈을 맺는데 바로 장남인 홍석현과 신연균의 혼맥이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36살이라는 최연소 검찰총장 신직수. 8년의 검찰총장과 3년의 법무장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등을 거치며 1,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는 등 유신의 앞잡이로 나선다. 또 홍진기는 12.12사태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자 이번에는 차녀 홍라영을 국가안전기획부장 노신영의 아들 노철수에게 시집보낸다.

광주고검장을 역임한 차남 홍석조는 BGF리테일(舊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을 맡고 있고, 3남 홍석준은 삼성SDI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보광창업투자 회장을 맡고 있다. 4남 홍석규는 보광 대표이사 회장을, 차녀 홍라영은 삼성문화재단 상무를 맡고 있는 등 삼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는 JTBC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UN 사무총장에 도전해보겠다는 꿈을 가졌던 홍석현은 중앙일보 입사 전인 1983년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비서실장은 주미대사 출신 외교관 함병춘이었는데, 그가 아웅산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채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드디어 사실상 삼성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마침 2005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조선·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분리하는 한편 UN 사무총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그를 주미대사에 발탁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임명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고 만다.

AFP. 1835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통신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사이다. 로이터, AP 통신과 함께 세계 3대 통신사에 속한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親독일파 비시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1944년 연합군이 파리로 진군해오자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속한 저널리스트들이 ‘AFP’란 이름을 다시 걸고 뉴스를 전파하고 국영 AFP로 재건하였다. 세계 165개국에 저널리스트를 두고 있는 이 회사의 자존심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어디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비하겠는가? 

## 제2부. 겨레는 살아있다.

### 2-2.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



김 정 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子

피난수도 부산에서는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가 그 발표를 믿다가 적지에 갇힌 인사를 잔류파라 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쪽은 도강파라 구별하면서 사지 속에 빠진 인사들에게 월북 좌파로 이념 매도하기 시작했다. 국회도 덩달아 춤췄다. 1950년 9월 17일 조경규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특별 규칙안’이라는 것이 제안되었다. 6.25사변을 계기로 발생한 국회의원 사범에 관한 징계 표준을 정하자는 것이 제안 이유였으며, 안건의 골자는 (1)북괴 점령 지구에 잔류 또는 귀환하여 이적행위를 한 자, (2)이적행위 사범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의 탄압으로 인한 경우는 ‘정상을 참작’ 한다는 내용이었다. 동료 의원의 불행도 모자라 비수를 꽂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는 국회의원은 무슨 속내인지 알 수 없으나 전시하의 적정(敵情)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경박한 사려로 보는 것이 적지 3개월을 겪었던 나의 견해다.

이 안건이 전쟁 경험이 풍부한 이청천 의원의 변호와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폐기 동의가 제의되어 가결 폐기된 것은 다행한 결과라 하겠다. 이 안건 해당의원은 9.28수복 직전까지 전

체 국회의원 210명 중 148명만 남하하고, 62명 의원이 징계대상이 되었던 중요 사안이었던 만큼 적지하의 실정을 밝혀서 바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제안 설명에 보면 퇴로가 끊겨 서울에 갇힌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 ‘정상을 참작’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정상 참작이라니! 납북되어 북으로 끌려간 말이 없는 의원은 어찌하라는 말인가?

조경규 의원이 제기한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처음부터 중대한 방향 착오를 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선량에 의해 입법 활동하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의의 전당이다. 6월 27일 수도 사수를 결의한 국회가 채 하루도 지나기 전 대국민 결의되는 절차도 없이 정부의 꿈무늬를 뒤따라 도망친 행위부터 국민에게 소명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었다. 납북은 이렇게 당했다.

국회가 수도 사수를 결의한 것은 1950년 6월 27일 새벽 4시에 소집되어 5시에 산회하는 사이 의결되어 전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다. 한강교 폭파 명령이 떨어진 것은 28일 새벽, 국회가 수도 사수를 결의한 20시간 뒤이다. 한강교 쪽에서는 전방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이 퍼뜨린 입소문으로 27일 밤부터 인파가 몰려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통제 불능의 대혼란 상태였고, 탈출 기회는 국회가 해산하는 시점으로 보면 겨우 15시간 남짓, 그러니 국회가 낸 수도 사수 결의는 대국민 공염불이자 사기였음을 인식하고 국회가 산회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식솔과 탈출해야 가능한 타이밍이었다.

국회 결의와 정부, 대통령이 남발한 거짓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속절없이 갇히게 된 것이다.

남침이 시작되자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모시기 작전’ 명령이 전군에 하달됐다. 전시 작전 명령은 불가항력의 절대 명령이다. 정치보위부와 내무성은 명령 표적이 되는 인사 색출에 혈안이였다. 이 전쟁은 북한의 준비된 남침이었으므로 서울 점령과 동시에 말단 조직까지 가동되고 있었다. 공산국가의 특성은 중앙에서 말단 동네에 이르기까지 이웃 간에도 감시, 고발되는 촘촘하게 정보망이 뻗치는 구조다. 그들이 겨냥하는 납치대상은 비단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기여한 인재가 총망라되었고, 모시기 작전은 공산치하에 갇혀야만 가능했다.

수도 서울을 북한이 지배하도록 내준 것은 이승만 정권이 아니던가? 사지를 피할 수 있는 틈새는 딱 두 가지가 있기는 했다. 숨어있는 곳을 들키지 않던지, 이웃이 알아도 눈감아 주는 경우다. 서울에 갇힌 인사가 살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 나가는 기적뿐이었다. 북한의 세밀한 점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내 아버지가 당한 것도 순간의 허점을 허락하지 않는 점조직 밀고였다. 적 치하 3개월 동안 무사히 살아남은 것은 천우신조로 보는 것이 공포 속 서울의 실정이었다. 뒷문을 걸어 잠가놓고 대문만 활짝 열어준 정부가 이제 와서 면피용으로 납북인사를 월북 좌파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뿐만이 아니다. 가장을

없고 생계가 막막한 가족에게도 연좌제라는 가계형 처벌로 취직길을 틀어막아 평생 가난의 고동 속에 살게 했다.

월북 좌파라는 논리의 비약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반론의 비약도 성립된다고 본다. 10만 납북인사를 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한 면면이었다. 노동자를 노리고 농부를 잡아간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인사로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도 독립운동가, 전직 내무부장관, 미군정의 민정장관, 군사령관 등 지도급 인사가 상당했다. 월북했다고 하면 이분들 신분에 합당한 이치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자 생각을 추구하는 동물이었기에 지구에 찬란한 문명이 생성되었으며 본능적 추구에 따라 진화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부동의 학설이다. 대한민국 중류 이상의 인사가 월북했다면, 이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낙원이 그 곳에 있어야만 월북의 욕구와 충동이 가능한 것이 추구 본능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와 처자식, 일가 친척과 대대로 내려온 뿌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연의 끈인데 월북했다고 한다.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공산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용공분자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론상 반드시 생겨야하는 충동 조건이 그렇게 되었으니 하는 반론이다.

납북인사는 단절의 땅에 끌려가 처절한 그리움의 삶을 살다가 비운의 한을 머금은 채 떠나갔다. 훗날 ‘전시납북가족협의회’에서 수집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1946년 7월 31일 남한인사를 납치하려는 김일성 교지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다. 자국민 보호 책무는 땀겨쳐 놓고 월북 좌파라니!

납북인사를 월북 좌파로 이념 타살한 자들에게 시(詩) 한 수를 헌정하고자 한다.

시제는 ‘조국이며, UN이며’ 이다.

조국이며 UN이며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 가노라  
조국이며 UN이며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이 시는 6.25 전쟁이 한창 때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한만국경으로 밀고 올라갈 무렵 구출 대표단을 조직한 ‘6.25사변 피납자 가족회’가 국회와 정부에 진정하여 터준 작전지역 길 따라 포연이 자욱한 악명 높은 평양형무소를 수색하던 중 발견한 절명시다. 이미 그곳에는 인사는 간 곳 없고, 곳곳에 널려있는 흔적을 뒤지다가 어두침침한 형무소 감방 벽면에 새겨진 손톱으로 긁어 써놓은 시다. 목마르게 소식을 기다리는 납북가족에게 구출에 실패하고 돌아온 대표단이 내놓은 이 시를 보고 우리 가족 모두는 통곡을 터트리며 피눈물을 쏟았고 단장의 아픔으로 나날을 보냈다. 시 속을 들여다보라. 거기 어느 구석에 인사들이 낙토로 보인 곳에 있다는 말인가.

지금쯤은 남의 불행을 즐겼던 영혼들은 죄업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상 싶다. 이들에게 진정 납북인사의 심사를 보여주어 참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시의 바람이다.

1951년 11월 이승만 영구집권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친여세력은 집권당 창설을 서둘렀고, 1951년 12월 23일 이승만을 당수로 추대하는 자유당을 창당했다. 자유당은 조직을 완성하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표결에 부쳤다. 국회는 다음해 1월 18일이 안건을 표결에 회부했으나 투표결과 가표 겨우 19표, 부표 14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개헌안은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대통령에게 절대 다수가 떠받들 거라 착각하다가 일이 이지경이 되자 그들이 낭패 당할 때마다 늘 써오던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자유당은 그들의 지지기반인 원외 자유당을 통해 기간조직인 한청, 농청, 국민회, 부인회 등 전국에 뻗쳐있는 산하조직에 훈령을 내려 보내 개헌안 부결 규탄 민중대회를 열고 연판장을 돌려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전개했다. 국회는 이승만정권이 그들이 의도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써먹어온 상투적인 협박 수법에 분개하고, 결사 항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회 보기를 관변 단체쯤으로 여기는 정부는 결사항쟁을 코웃음치며 무지막지하고도 집요하게 관제 파괴 공작을 감행했다. 무시무시한 ‘백골단’, ‘땃별떼’가 등장했고 살벌한 현수막과 표어가 부산거리를 도배했다. 국회의사당은 정체불명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었으며 의사당에 대고 욕설과 고함의 난무하여 공포에 질린 국회의원은 의사당에 꿈쩍 못하고 갇혀버렸다. 공포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정부는 때맞추어 국회에 파견한 경호경찰을 ‘재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철수시켜 버렸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무방비 공황상태에 놓인 시점에서 재차 개헌안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때마침 퇴임하는 장면 국무총리 후임으로 개헌안 통과에 캐스팅 보트 위치에 있는 장택상 국회부의장을 포섭해서 임명했다. 정부의 실정에 대해 통렬하게 질타하던 야당 맹장 장택상은 국무총리에 임명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표변하여 ‘신라회’라는 원내 친목 단체를 만들어 세력을 넓히는 한편 의사당 공포 분위기를



가 최고조에 이를 무렵 내각책임제와 직선제를 혼합한 절충안을 야당에 내놓고 이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총사직을 결행하겠다고 협박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소환운동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해도 된다고 박자를 척척 맞춰줬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무법천지 작태에 분노하는 것이 민심의 흐름이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 역시 대통령의 실정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국민감정을 부추겼다면 전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대통령과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운을 외면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건 것이다.

2월 21일 이런 소요사태에 대해 국회에 출석한 대법원장 김병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권리는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의 무한계는 헌법이라는 것으로 그 근간을 규정하는 것이 통례다. 따라서 국회의원 소환을 달성키 위해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하며 만일 헌법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절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법 해석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명쾌한 논리요, 사법부의 경고였다.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4일 기어이 국회 야간회의에서 통과됨으로서 난무했던 정치파동은 일단락되고 7월 7일 공표되었다. 이 개헌안은 표결 과정이 또한 헌정 파괴적이었다. 지켜보는 민심을 피해 야간에 진행한 것도 떼떈하지 못했거니와 표결에 앞서 이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야당 맹장 서민호 의원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졸속으로 사형언도를 내려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위협을 은연중 띄웠다. 그리고 피신 중인 국회의원을 색출해 경찰력으로 아예 출근버스에 통째로 넣어서 강제연행 하다가 임시의사당인 부산도청 무덕관 한 쪽에 연금시키고 의결정족수를 편법으로 채운 다음 안건 심의와 제반 독회 절차를 모두 건너뛰어 기립표결로 불법통과 시킨 것이 그 이름도 추한 ‘발췌개헌’이라는 법이었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어 6월 9일 제3대 국회가 소집되었다. 집권 여당이 압승한 3대 총선은 한마디로 난장판 선거였으며 집권 자유당과 관권의 포악이 극심했던 선거였다. 사람이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범죄자의 공통심리로서, 이때 대통령 나이 여든이 넘어 오늘이라도 잠자다가 해까닥 넘어가지나 않을까하는 방정맞은 생각에 미치자 자유당은 야당 부통령에게 승계권이 있는 현실에 몸서리쳤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번 발췌개헌에서 가까스로 변칙 통과한 쓴 경험을 거울삼아 대통령의 영구집권뿐 아니라 부통령을 뺏기로 버리고 총선에 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경찰 5만 명이 선거 개입에 동원됐고, 기관총을 앞세워 선량한 백성을 압박했다. 그때는 순박하기만 했던 어진 백성들을 누르면 누른 만큼 효과를 보는 시대였다. 전국 선거구에서는 자

유당의 시나리오대로 부정, 탈법, 관권이 난무하고 야당은 악전고투했다. 이로써 자유당은 압승하게 됐고, 국회의사당을 가득 메운 여당 의석을 보며 그들은 환호작약했다.

그러나 이 완승 국면이 제1공화국의 파멸로 가는 전주곡이 되었으니 실상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의 얼룩이 전국에 걸쳐 튀지 않은 곳이 없었으므로 몇 가지 사례만 추려서 보기로 삼겠다.

5.20 3대 총선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여야 입후보 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내세운 선거였다. 집권 자유당은 대통령 3선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 추천하는 형태였고, 야당은 선거 초기부터 운동원이 못매를 맞는 험악한 선거관으로 개헌 저지선조차 어려워 몸부림치는 양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고발하자면, 자유당 2인자 이기붕이 출마한 서대문구에서 야당 후보 조봉암은 후보 등록에 방해를 받아 입후보조차 하지 못했고, 정계의 거물 신익희는 경기도 광주에서 자유당 후보 최인규의 운동원과 경찰로부터 폭력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었으며, 이승만 정권에 위협을 주는 야당 명장 오위영은 지지자를 색출 구속하는 바람에 지지자 석방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하고 말았다. 경남 사천에 출마한 정헌주는 운동원 72명이 집단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중 한 명은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런 피해 상황은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야당 선거구 전체에 해당되는 무법천지 세상이었다. 국토방위에 쓰라고 원조한 무기 기관총은 국민을 겨누고 있었다. 경남 창원의 김봉재, 대구 을의 조병옥, 경북 칠곡의 장택상 등 어제의 여당 고위 실세들도 경찰의 탄압과 폭력배의 주먹에 곤욕을 당했으며, 심지어 여당 중진으로 이기붕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 병구의 이갑성, 경북 달성의 배은희조차도 관권의 낙선공작에 나가떨어지는 포악이 난무한 총선이었다. 그러고서도 개헌선인 136석 확보에 실패하고 114석을 얻는데 그치자 자유당의 발악은 꼭짓점을 쳤다. 관에서는 국회의원 약점을 캐느라 바빴고 회유와 매수, 협박 등 맹렬히 포섭공작을 벌려 개헌 안전세력을 구축한 다음 국회 개회 첫 날, 이 대통령에 특정하는 영구직선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1954년 9월 6일자로 개헌공고가 발표되어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표결에 회부되었다. 개헌안은 자유당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으로 밀어붙인 것으로서 모두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이번이 일어났다. 자유당 쪽에서 반란표가 나와 가표 135표, 부67표, 기권 1표로 부결되고 만 것이다.

개헌안은 1954년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오후 6시경 투표가 끝나 자유당 소속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사회로 김표 결과 한 표차 부족으로 최순주 부의장에 의해 부결 선언되어 개헌안은 종결된 사안이었다.

자유당은 난리가 났다. 지도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공황상태에 빠졌고, 모사들은 타개책을 찾느라 부산하게 돌아왔다. 대통령 나이 이제 80세.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령인데다가 승계권은 야당 부통령에게 있었다. 선정이나 했으면 덜할 텐데, 못된 짓이란 짓은 다해먹은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뺏기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당 지도부와 책사들은 좀처럼 묘안이 나오지 않아 분위기가 침통했다.

이렇듯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못된 짓에 이골이 난 이들은 드디어 기발한 묘수를 찾아낸 것이다. 자유당 지도부는 신바람이 났다. 불법이든 뭐든 꼬투리만 잡히면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서광이 비친 것이다. 자유당 지도부는 즉각 실행에 들어갔다.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 일요일, 긴급 의원 총회가 소집됐고, 표결의원 203명의 총은 135.333...이 되므로 수학적 개념상 사사오입하면 135표가 개헌선이라 우기기로 입을 맞췄다. 29일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봉을 다시 잡은 부의장 최순주는 엇그제 개헌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것은 자신의 착각이었으며, 부결을 취소하고 “국민투표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고 기습 번복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헌법 명문에는 총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헌이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찬성표 135는 개헌선 135.333...에 모자란 것이 분명하며, 개헌선을 충족하려면 136명 이상이 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수치였으나 헌법이 유린당하고 만 것이다. 이에 야당 국회 부의장 광상훈은 사회봉을 빼앗고,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를 선언한다. 개헌안이 부결된 것을 국민 앞에 선포한다.”고 사회봉을 두드렸다. 그러나 야당

의 분노는 공허였으며 사사오입 정치파동은 결국 개헌으로 끝나 자유당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승만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자유당이 애써 통과시킨 국민직선제 헌법안조차도 합법적 투표였다면 이승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 유엔대표가 휴전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1953년 7월 27일 판문점)

당시의 민심이였다. 자유당은 그들이 믿는 거대한 관권의 힘이 있었고, 실제로 관권의 힘을 남발했다가 분노하는 민심의 소용돌이 격랑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되던 날, 자유당과 정부는 그들이 찾아낸 기가 막힌 묘수로 되살아나 촉매를 높이 들었고, 구사일생에서 얻은 승리였던 만큼 그 달콤함을 만끽했다. 그러나 이 불의를 지켜본 역사가 범죄자에게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6.25사변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에 조인하면서 전쟁은 종료됐다.

3년 1개월의 전쟁 기간 동안 피아간 백 만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혈전이었고, 10만의 대한민국 인사가 이북에 끌려가 통절의 세월을 겪게 했다. 세상은 다시 평온 속에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고, 전란에서 벗어난 정국은 1956년 5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가 정당한 헌법에 입각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 출마자격이 끝난 선거였으나, 사사오입 변칙 개헌으로 이승만에 특정하여 무제한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상태였고, 지나가는 소가 옷을 억지 논리로 번복, 통과시킨 헌법에 근거한 선거였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제도와 노령의 대통령 자리가 불안했던 자유당은 여당 출신 부통령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이번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과 정부는 불법, 탈법 관권을 총 출동시켰으며,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살피볼 여유가 없었다.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을 런닝메이트로 지명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신익희, 부통령 장면을 지명하여 대항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백성은 이승만을 하늘처럼 우러러 떠받들고 이기붕은 이런 민심이 얹혀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기붕 주변의 아부가 그렇게 믿게 했다. 그러나 유세가 시작되고 뚜껑을 열고 보니 천지가 개벽하고 있었다. 이승만을 하늘로 알고 받들어 모시는 줄 알았던 민심은 경무대 구중궁궐 안에서 그들 추종자들이 두 손 마주 잡고 대통령이 듣기 좋게 뇌까린 아부 민심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관권은 부랴부랴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다. 야당이 유세하는 도심의 집회를 봉쇄했고, 설 땅이 없는 민주당은 인적이 드문 외곽 한강 백사장으로 내몰렸다. 당시의 한강변은 잡초가 무성한 인적이 드문 시골풍의 버려진 모래사장이었다. 이런 볼품없는 외딴 모래사장에 유세 당일, 야당도 여당도 놀라 자빠지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널따란 백사장에는 시내 도심지였다면 절대로 수용 불가능한 백만 인파가 몰려온 것이다. 인파는 백사장도 모자라 한강둔치에까지 발 딛을 틈도 없이 메워졌으며 이런 다중수용이 가능한 장소로 몰아낸 정부와 자유당에 대해 민주당은 백번 고마워해야 하는 이번이 벌어진 것이다. 이 유세 한 방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다.

이승만 정권의 행패에 질린 민심은 신익희 인기로 반전되어 한강 유세장은 하늘을 찌르는



함성으로 신익희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이 내건 극히 평범한 슬로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국민적 호응 속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갔다. 생각지도 못한 야당 열기에 위기를 느낀 자유당과 정부는 조급했다. 당과 관권이 야합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였고, 부정 선거 획책에 급급했다. 반면, 민심을 탄 민주당은 힘이 났다. 유세팀은 전국을 누비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쳤고, 야당 유세팀이 이동하는 곳마다 청중은 구름처럼 몰렸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호남선을 타고 유세하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이리역에 이를 무렵, 뇌일혈로 쓰러져 버렸다. 평소에 풍채당당하고 건장했던 신익희가 무리한 강행군을 하다가 급서하고 만 것이다. 이 불의의 사고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비보에 접한 민심은 슬픔에 잠겼으며 심지어 자유당과 정부가 꾸민 음모로 보고 경무대까지 밀고 나가는 소요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상대가 없어진 대선에서 이승만 후보는 5백여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그 표가 순수 민의였다고 믿는 국민은 그들 빼고 아무도 없었으며, 신익희를 애도하는 표심 상당수는 기권 또는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한 조봉암에게 쏠려 2백 10만 표가 돌아갔다. 이 다 득표가 조봉암에게는 화근이 됐다. 차기의 위험 인물로 찍힌 조봉암은 빨갱이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대통령 당선 이 기정사실화되자 자유당은 부통령 선거에 당명을 걸었다. 민심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면이었고, 정공법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본 자유당과 정부는 타개책을 찾는다는 것이 피아노표, 샌드위치표, 올빼미표 등 그때그때 지역형편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수작이었으며, 개표 과정 또한 전국적인 야바위 짓으로 표수 조작 속에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장면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마지막 대구 투표함 일부만 남아 있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 지역이었고, 여론도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에 패색이 짙은 자유당은 엉뚱하게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시비를 걸고 개표를 중단시켜 버렸다. 관권과 폭력에 만신창이가 되어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서럽게 치른 야당이 부정선거 했다는 말에 지나가는 소가 다 웃었다. 개표는 4일이나 끝났다. 그 시간에 자유당과 정부는 자작극을 꾸미느라 요란했다. 서울에서 이정재가 이끄는 한국 최대의 주먹 동대문파가 출동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개표소의 전기를 끊어 버렸다. 어두컴컴한 개표장 안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 등 민주주의가 도둑질 당하는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바로 이 때, 빠르게 움직이는 수상한 형체가 촛불에 잡혔다. 하도 많이 당해 도가 튼 야당 참관인이 감춰둔 비상용 촛불을 켜고 도둑 현장을 비춘 것이다. 개표를 4일이나 끄는 동안 안 봐도 뻔한 정부와 자유당의 음모에 시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섰다. 이제까지 권력이 휘두르는 흉두깨를 피해 납작 엎드렸을 뿐 백성은 정권의 못된 짓거리를 다 알고 참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다. 거

대한 폭력 조직에 의해 유혈사태가 날 뻔한 대구 개표 현장에는 분노하는 민심이 몰려들었고,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대통령은 슬그머니 개표 속개를 지시했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한 나라의 통치권자를 뽑는 중차대한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국권을 농락하는 중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집권당이 고발했는데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인 조사도 없이 개표 속개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한통속이었고 진실을 다 알고 있었으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모른 척 속개를 지시한 것이 실재였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민심은 떠났는데 대통령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고령이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 목숨을 걸었다. 죄나 안 지었으면 정권만 넘겨주면 되겠지만 죽을 죄란 죄는 다 지은 죽은 목숨이 아니던가. 자유당이 할 수 있는 필승전략은 한 마디로 관권에 의지하는 불법선거뿐이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 자유당은 사생결단으로 패약을 했고, 선거는 최악의 얼룩을 선거사에 남기고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문제가 컸던 몇 곳을 찾아가보자. 자유당 2인자 이기봉은 당선이 될 만한 자신의 선거구가 없어 전전하더니 그가 부리는 부하가 애써 다져놓은 구역에 들어가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대구 갑·을구, 창원, 진주, 이리 등에서는 투개표 부정이 발각되어 개표가 중단되었고, 총선 전반에 걸쳐 폭력과 소란 속에 진행되어 여당에게 무더기표가 쏟아져 나오는 선거의 암흑사였다. 특히 대구 갑에서는 마구잡이 표 장난을 치다보니, 무효표가 투표수보다 많은 해프닝이 벌어졌고 광주에서는 32장의 투표용지가 투표함 속에서 불거져 나와 시비가 벌어졌으며, 월성갑구의 무더기표, 부산진 을구의 부정개표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만큼 투개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야당이 증거 보존하기에 바쁜 난맥상이었다. 이 총선은 자유당의 폭력 동원 외에도 국방부, 경찰의 공권력이 거의 단말마적 포악으로 전국을 휩쓴 그런 선거였다.

1958년 6월 16일, 국회가 열리던 날 야당은 ‘5.2 총선거는 자유분위기 파괴와 사후 보복 행위’에 관한 관계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긴급동의가 발의되어 안건이 의결된 후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 선거자체가 불법 탈법 총체적 부정선거로 난잡하여 이루 다 열거하기가 힘들고 그 중에 중요한 질의 답변을 추려서 당시의 선거 행태가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총선 기간 내내 정부와 자유당은 거의 노골적으로 부정 선거를 저질러 그 패약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이날 출석한 관계 장관들의 답변은 지나가는 소도 웃겼다. 장관들의 답변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들 됴됨이에 걸맞은 다소 거친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다. 장관들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답변대에 설 때, 양심은 모두 개에게 던져 주고 나왔는지 거짓과 허위, 뻔뻔함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첫 질문에 나선 윤제술 의원의 질문 요지



는 (1)정부는 5.2 선거를 공명선거로 보는가? (2)해가 거듭할수록 선거의 부정 불법이 가산되는 원인과 시정책은 무엇인가? (3)경찰이 야당 출신구와 야당 지지자의 비위만 캐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4)법무장관은 지금 성행하고 있는 선거 보복 행위를 알고 있는가? (5)군인과 교육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6)검찰은 선거사범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데 신속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내무장관은 “민의를 창달하고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과 경찰이 일한 것으로 보나, 만일 그 선을 넘어서 선거에 관여했다면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세상 천지가 권력과 폭력으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은 민의창달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고 불법 사례는 금시초문이라는 뜻이다. 다음 답변에 나선 법무장관의 답변은 또 이랬다. “지난 5월 22일 실시된 일본의 총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선거 소송 8,530건 중 8,508명이라는 예로 보아 선거 사범과 선서 소송 건수만으로는 공명선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봐도 당시의 선거 포악과 불법은 너무도 명확하여 선거 기간 내내 주요 신문에 대서 특필됐다. 법무장관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가당치도 않은 교언(巧言)으로 정부와 여당의 범죄를 얼버무리고 있었다. 문교장관이란 소위 교육자도 못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답변대에 서서 한다는 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 관여나 더 나아가 폭력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때 선거는 야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학교가 유사한 형태로 불법 관여했음에도 문교 장관은 모르고 있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분하고 역장이 무너졌지만 어찌겠는가.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야당을 조롱하며, 펄펄 뛰는 야당을 보고 쾌감을 즐기는 것을.

하도 난리를 쳐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관계 장관들은 선거 기간 동안 어디에 있다 왔는지 하나같이 민주 국가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깜짝 놀라 뒤로 나자 빠지는 시늉을 했고, 몰랐지만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엄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할 리도 없고, 부정선거 사범을 색출했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으며, 엄단은커녕 범죄자들은 백주대낮에 잘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겼다. 두둑한 ‘쩐’의 보상이 포켓에 실려 있었으니까...

가당찮은 정부 답변에 야당은 보충 질문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질문을 통해 (1)내무장관은 병으로 선거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하나 경찰서장과 군수 또는 중고등학교장을 모아놓고 자유당 지지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2)강원도 인제에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마친 김대중에게 기호 추첨을 못하도록 경찰이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3)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암호투표와 경찰의 단속으로 기권할 자유조차 막은 것은 옳다고 보는가? (4)전라도 이리에서 투표함을 증거 보존하려는 집달리를 구타하고 판사를 협박한 사실은 공명선거인가?

야당의 추궁은 맹렬했으나 얼굴에 철판부터 깔고 나온 장관들은 평소에 잘 단련된 솜씨답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많은 보충 질문이 계속되었으나 관계 장관의 양심 고백을 기대하는 의원은 없었으며, 다만 의분을 삭히는 의미만 있었을 뿐이다. 그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 하나가 질의 도중 불거져 나와 이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 가기로 하겠다. 이민우 의원 외 5명의 보충 질문에서 5.2선거 기간 중에 10달러의 원조액을 정부와 자유당 몇몇 인사가 나눠 먹었다는데 명단을 밝히라는 요구와 이로 인해 야당이 원조 문제를 허위 유포함으로써 국민을 현혹, 기만하고 북한에 선전 자료로 제공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의 의견을 묻고, 야당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미국의 원고 중단 사태로 올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며, 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자유당이 나눠 먹었다고 유포하는 야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야당이 조사를 자청하는 의도였으며 여당이 국가 중대 경제사범인 것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경고를 보내는 교육책이었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발생한 이루 셀 수 없는 기상천외한 범죄 유형이 증거와 함께 폭로되었으나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고, 이 정도면 당시의 선거 난맥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줄이기로 하겠다.

1960년 2월 3일 <3월 15일에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는 공고가 발표되었다.

이승만 제1공화국이 비극으로 몰락하게 된 이 대선은 애당초 여당과 정부가 뿔뿔하지 못한 책략으로 앞당긴 조기 선거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지병이 악화되어 1월 29일 복부수술 차 미국으로 떠나는 사이 이때다! 하고 정부와 여당이 후다닥 앞당긴 선거였다. 야당은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법정 선거일인 5월에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채택하고 호소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로 무위가 되었다.

야당이 대선 연기를 요청한 명분은 이랬다. (1)3월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30일 전에 실시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2)지난 날 정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관례를 보더라도 부당하며, (3)야당 후보가 신병치료차 떠나는 틈을 타 조기 선거를 하는 것은 ‘페어플레이’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농번기를 피한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 요청을 거절하고 조기 선거를 감행했다. 대통령의 이유라는 것이 참으로 요상했다. 우리나라가 유엔 결의에 의해 최초로 실시한 총선이 5월이었고,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이 법안을 서명, 공포한 입장이었다. 이후에 모든 대선, 총선은 이때에 맞춰 실시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야당

후보가 치료차 외국으로 떠나자 갑자기 농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실시한 3.15대선은 사실상 야당의 손발을 묶고 하는 선거였는데도 미덥지 않아 모든 관권을 총동원했고, 국민의 원성과 우방의 따가운 시선은 아예 귀 틀어막고, 눈 딱 감고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아주 신바람 나게 밀고 나갔다. 자유당 측 저들이 생각해도 이런 압박한 낯 뜨거운 술수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심이 크게 요동쳤던 한강 백사장 악몽 때문이었다. 사람이 가지도 않는 백사장에 발 디딜 틈 없이 메운 민심의 쓸림 현상에 그들은 기절초풍했고 야당도 놀랐던 대반전이 아니었던가. 우리 속담에 자라에게 물리고 솔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지금 정부와 자유당은 당시의 악몽에 빠져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었다. 미국에 신병치료차 떠난 조병옥 박사는 치료 17일 만에 2월 15일 급서했다는 비보가 날라 왔다. 두 번에 걸쳐 대통령 후보를 잃은 민주당은 하늘이 무너졌다. 말없이 돌아온 유해를 만인의 애도 속에 장례를 치른 민주당은 실의에 빠져 부통령 선거라는 공당으로서의 소임에 주저 않을 수만은 없었다. 서로 다잡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부통령선거에 전력 투구했다. 신병치료, 장례 등 이리저리 시간을 뺏긴 민주당은 이미 중간 선거전에 들어가,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날 쓸모없는 백사장 공터가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었음을 뼈저리게 겪은 정부 측은 이번에는 도시의 공간은 모조리 틀어막아 집회를 방해했다. 민주당은 도리 없이 선거의 핵심 요지 서울을 접고 대구로 내려가 지방 유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2월 26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유세하던 날, 정부는 야당 도시의 바람을 재운다고 대책을 세우는가 싶더니, 일요일 이 날 갑자기 학교 강제 등교령을 내려 청중을 차단하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분개한 경북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3개 학교 1천여 명은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였으며, 학생 시위를 저지하는 과정에 많은 학생이 다치는 불상사가 생겼고, 그 중에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당하는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 무리수가 3.15부정선거의 국민 봉기로 키우면서 서울의 학가(學街)를 자극하게 되어 마침 서울 운동장에서 여는 3.1절 행사에서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학생 특위의 호소문이 뿌려져 정부의 횡포를 규탄하는 데모사태로 확산되었다.

자유당이 정부통령 선거에 거의 발악적 무리수를 두는 데에는 그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때의 대통령 나이 만85세. 국민의 평균 수명 50세 때이므로 지금에 비교하면 100세에 해당하는 나이다. 선거 판세 또한 우려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였으니, 살기 위해서라도 물불을 가릴 수 없는 절박한 처지가 돼 있었다. 그래서 당정 간에 승수를 찾느라 별짓을 다한 것이 도리어 악수가 되어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수의 실태를 살펴보자. 1960

년 2월 28일 일요일, 이날 학생을 강제 등교 시킨 것은 누가 봐도 선거 개입 수작이었다. 대구 학생들의 데모는 학생까지 끌어들이는 부정 선거에 대한 반발이었고, 그렇잖아도 장기 독재의 부패정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던 차에 야당 후보에게 번고가 생겨 크게 속상해 있던 때다. 국민은 조기 선거의 야비성과 관권 탄압에 공분을 품고 있다가 학생 데모가 국민감정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5만 경찰을 선거 운동에 동원했고, 유권자의 30~40%를 사전 투표하고 당선표를 80%로 정하고 개표조작을 했다. 예정표를 만들기 위해 야당 선거위원과 참관인을 투표장에서 내쫓고 3인조, 9인조 부정팀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부정투표를 자행했다. 민주당 중앙당부는 결과가 뻔한 3.15 조작 선거에 대해 개표도 하기 전 불법 무효라 선언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 규정하고 극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단을 독식하고 있는 자유당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선포해 버렸다. 3.15 자유당 승리의 축배를 높이 쳐든 그날, 민초들 또한 의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공권력 바람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유순하기만 해 보였던 백성은 사리분별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대구 학생 데모가 지핀 의분(義憤)은 밤사이 마산으로 이어져 경찰과 학생 간에 유혈사태가 일어났으며, 피는 학생과 국민을 더욱 자극시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4월 11일 늦은 밤, 3.15 데모 때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의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 떠오르는 끔찍한 장면이 발견되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본 혈



▲ 김주열 열사 사진

기왕성한 학생들의 분노는 건잡을 수 없는 전국 사태로 퍼져 나갔다. 4월 19일 5~6만 명에 달하는 청년 학도가 국회 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무대로 진출했다. 이날 하루 종일 시위 학생과 경찰이 대결, 충돌하는 사이 경무대 여귀에서 경찰의 발포로 120명이 사망하고 7천 여 명은 총상



을 입고, 667명의 학생이 연행당하는 유혈사태로 커지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이 촉발되어 거국적인 대정부 항거로 발전하게 됐다. 정국은 어수선하고 혼미에 빠졌으며 데모 기운이 노도처럼 퍼져나가자 정부는 4월 19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지구 경비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압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치도곤 앞에 납작 엎드린 어제의 국민이 아니었다. 정부 측의 우격다짐식 과잉 진압은 민심을 더욱 자극시켜 쇄도해 나오는 시위대는 저지불능 상태로 격화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오후 5시를 기해 비상계엄으로 격상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에까지 비상계엄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거의 전시 수준의 군 병력으로 국민을 강제 제압하려고 기도했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중장은 제15사단을 서울에 진출시키고 6가지 항목을 들어 대국민 선포를 했다. (1)집회 해산 (2)옥외집회 금지 (3)학교 휴학 (4)통금시간 단축 (5)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 검열 (6)유언비어 단속.

그러나 이때는 이미 학생과 일반 시민의 분노를 무장군인이 진압해서 수습할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유혈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질 조짐을 보이자 학생들의 희생을 더는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대학 교수단이 일어섰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호응, 동조하는 가운데 4월 26일 아침에는 시청 앞 광장과 중앙청에서 경무대로 이어진 도로가 인파로 뒤덮이는 소용돌이로 격화되어 갔다. 이 기운은 시간이 가면서 가속이 붙어 3.15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혁명적 봉기 현상으로 바뀌었고, 정치적 타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정적 단계로 치달고 있었다. 나라의 사태가 매우 우려할 만한 혼란으로 발전하자 우리나라와 특히 우호관계에 있는 미국 정부도 국민의

의거를 지지하고 전례에 없는 강경한 어조로 “학생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 성명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제 사태 수습 기관은 국회뿐이었고, 국회는 4월 26일 대통령의 하야를 결의했다. 서울 도심에 쏟아져 나온 수 십 만의 성난 군중을 지켜본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굴복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3.15정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음을 처음으로 시인했고, 그의 12년 독재권좌에서 떠나면서 제1공화국은 오욕 속에 마감됐다.

4.19혁명은 동서고금을 통해 독재자의 말로가 같은 길이었음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에게는 권력무상의 허무를 안겨주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이기봉은 시위대에게 쫓겨 그가 전성기 때에 모시지 못해 안달이 났던 권력 지향형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으며, 피신했던 간 부대 지휘관에게도 소외당해 일신의 실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 경무대로 몰래 숨어 들어갔으나 자신의 만아들까지 상납하며 충성을 바친 대통령에게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경무대 경내의 한 칸에서 일가족 모두가 자결하는 참극으로 인생 여정을 끝내야했다. 그들 일가족의 죽음은 만아들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이 부모를 먼저 쏜 죽이고 살고 싶어 하는 어린 동생마저 쏜 죽여 가문의 대를 모질게 끊은 다음 자신에게는 권총 두 발을 쏘아 자결한 것이 통설로 알려졌다.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나는 이 참담한 권력자의 말로를 일가족 자결 쪽으로 정리해서 그들의 인간사를 위로해주고 싶다. 이승만 박사 역시 통치기간 내내 독단과 압정으로 얼룩져있고 수많은 원혼을 비명에 보내 우리 초기 헌정사를 오욕 속에 끝냈으나 이 또한 순박한 우리의 민심은 그의 노령을 애석하게 여겨 수많은 과오를 덮어주고 싶어 했다고 이해하고 싶다. 4.19 민주 혁명 직후, 실각한 이 박사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그가 해외생활 때 살았던 하와이로 떠났다. 건강 약화로 휴양차 떠난다는 것이 여행 목적이었으나 어수선한 시국 수습책이었으며, 망명 성격을 띤 허정 내각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년 후, 이 박사는 군사정권에 의해 하와이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불귀의 몸이 된 것은 역사의 비극이며, 먼 시간이 흐른 지금 권력 무상의 허무만 남긴 채 가슴 시린 옛 이야기가 되고 있다.

#### - 맺는 글 -

**‘제1공화국 몰락에 비애를, 이승만 건국대통령 국부론에는 분노하노라.’**

세간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독립운동가로 잘못 알고 그의 위상을 높여주는 경향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이에 동의할 수 없는 흔적이 곳곳에 다분하다. 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추대 받은 이승만은 미국에 안주하면서 국무총리를 원격조종하



▲ 독재정권 이승만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과 서울 수송초등학교 아이들



고 편안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장기 공석으로 있는 대통령의 귀환을 요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독립운동은 일제와 싸워야하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는 형극의 길인데, 수장되는 사람이 매사 이 모양이니 임시정부 측은 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의 파행적 책임을 물어 탄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탄핵받은 시점에서 그의 대통령 자격은 소멸되었다고 봐야한다.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교학을 운영하던 이 박사는 1916년 미국 언론을 통해 반일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철저하게 친일하는 백인교사를 영입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주동자를 모조리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들어가면 외국인은 등록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교민들은 국적을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과 달리 이 박사는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이다. 1918년 미국에서 약소국동맹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교민이 모은 활동 성금 2천여 달러 중에 남은 돈 1,100달러를 착복했고, 국민회 대의원들이 잔액 반환을 요구하자 모금은 안형경과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라 거절했다. 이에 국민회 측에서 항의 차 방문하자 이 박사는 폭동 죄목으로 고발했다. 본건은 재판 중 국민회 총의장 명의로 특별 연조를 청한 공적인 서한이 공개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그는 교민들로부터 공금 횡령의 창피만 당하고 포켓 속에 집어넣은 돈을 도로 뱉어내는 망신스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꾀방하는 기록이 더 있으나 이쯤에서 멈출까한다. 이 박사가 진정 독립운동가였나? 그의 행적은 심히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6.25전쟁 때 백척간두에 놓인 국운을 제쳐둔 채 그가 경영한 독재 포악 통치다. 그의 12년 간 독단전횡이 그 도를 넘어 이번에는 국민의 탄핵을 받고 쫓겨났다. 이런 이 박사가 지금 특정세력에 의해 미화 찬양되는 가짜 역사가 판치고 있다.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가?

그가 행한 반민주적 통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조작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산 어른들은 방조 죄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시종을 कै내서 후대들이 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회고록 '제1공화국의 몰락' 편을 쓰게 된 동기다.

해방정국 때 수립된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책임제 국체로 출발했다.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이런 토대 위에 헌법을 기초했고, 국회 헌법소위를 통과했다. 이대로만 진행되었다면 이승만 박사는 단정을 거부하고 국정에 참여 하지 않은 김구 주석이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어 퇴임 후 국부로 추대 받고 국민들의 영원한 추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박사는 권력에 집착했고 헌법 원안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그의 측근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로 변안하라고 몽니를 부렸다.

그의 아집을 누가 꺾을 수 있는가? 결국 국회 소위를 통과한 원안을 파기하고 그가 뜻하는

대통령중심제로 관철시켜서 자신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 헌법을 서명 포고했다.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는 준법정신에서 오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본분이자 의무다. 국민이 이러하거늘 통치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준법기조를 지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물러났다면 이승만 옹호세력의 뜻대로 이대통령은 국부로 영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권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공권력의 무리수를 써가며 발췌개헌의 역지를 부려서 재집권했다. 이 발췌개헌은 조국이 바람 앞에 등불의 전시 위기 상황 속에서 민의를 강탈한 것이어서 국민감정이 심각했었다. 이랬으면 선정이나 할 것이지, 이 대통령은 독재통치를 하면서 민주국가에 역행하는 행태가 거듭되어 내외로부터 여러 차례의 경고음을 받았으나 귀를 닫았고, 끝없는 퇴행적 국정 일탈의 길로 치달았다. 다시 임기가 끝나자 영구 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길을 텃고 이어서 실시한 대선은 극악무도하여 제1공화국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만 것이다.

국회사를 보라! 거기에는 이승만정권이 몰락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국회의 사초로 보존되고 있다. 이승만 박사를 두둔하는 세력은 그의 치적에 관해 쓴 이 엄청난 파멸사가 불쾌하고, 화가 나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는 국회의 사초 외에 인정받는 역사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로서 이 안에는 국민이 제1공화국을 배척한 사유가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이 장기 독재를 도모한 시점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남부여대하며 임시수도 부산으로 피난민이 몰려오던 무렵이다. 연고지를 떠난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영주동 산자락에 판잣집을 짓고 비바람을 피하는 고달픈 인생을 견디고 있는 시기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번잡한 국제시장에 퍼뜨려 얹은 난민이 꿀꿀이죽 한 그릇도 먹기 어려운 때에 벌어진 일이다. 그들이 그러고도 사람인가. 권도(權盜)들이었지! 이승만 12년 독재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본 바로는 이 박사가 잘한 일이 딱 두 가지는 있다. 일제 시대에 조국 해방에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 먼 나라 미국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띄워 보내 갈증을 축여준 것과 6.25사변 때 반격에 나선 유엔군이 지리멸렬로 도망가는 북한 인민군을 쫓을 무렵 유엔 총회는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라고 결의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국군의 단독 북진을 명령한 대통령의 배짱 이 두 가지다.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호불호(好不好)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나는 이박사의 고집이 오랜만에 맞았다고 보는 쪽이다. 북진명령은 조국통일을 기도한 것이니 우선 기개가 좋았고, 실리에서도 득을 보고 국토를 넓혔다. 서부전선에서는 38선 이남의 웅진반도를 빼앗긴 실(失)이 있기는 했으나 이곳은 어차피 지형이 잘록하게 갇힌 꼴이라 전쟁이 나면 고립무원의 땅이었다. 반면 동부전선 쪽은 거의 금강산 밑까지 치고 올라가 우리

의 영토가 되었다. 북한은 지금도 속이 쓰릴 것이다. 이곳에는 속초, 양양 등 양질의 수산물 항구와 철원의 널따란 곡창지대가 뻗쳐 우리에게 실보다 훨씬 많은 득을 주었다.

휴전회담이 열릴 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담을 거부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이 설득해도 대통령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침략 당사국이면서도 회담에서 빠졌다. 중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는 국면이었고, 북한은 군 조직이 무너져 중공에 매달리는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러던 것이 휴전회담이 열리자 당당한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표로 남일 대장을 내세우더니 궤변에 능한 남일은 능수능란하게 세치 혀를 놀려서 회담장을 농락하였으며, 회담은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회담장 밖에서 구경하는 관객 신세가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지금 이북에서 떠벌리는 소리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들은 늘 말투가 비비 꼬여 점잖지 못한 쌍소리로 상대를 열 받게 하는 면이 있었다. 병어리 냉가슴 앓다 못해 뒤늦게 휴전회담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북한과 중공이 짹짹이 되어 휴전 회담을 반대한 한국은 회담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며 쫓는 바람에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평등 휴전 조약에 당해야만 했다.

남북 인사는 단 한 사람도 구출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숨겨놓은 국군 포로는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에 시달려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분이 살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휴전 회담은 이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휴전 거부로 조국 통일의 대의(大義)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불평등 조약을 감수했고, 대통령의 뜻을 군소리 없이 수용했다.

그렇다면, 해방 정국 때 분단이 뻗어 보이는 단정(單政)을 거부하고 통일조국을 위해 이북에 간 김구 주석과 본질에서 뭐가 달라 빨갱이로 몰았는가. 남북협상을 통해 조국 통일을 기도했으나 그들의 새빨간 속셈을 보자 포기하고 돌아왔고, 김구 주석이 이끈 한독당은 2 대 국회에 참여했다. 김구 주석과 이 박사 두 분의 충정은 조국 통일이었다. 똑같은 뿌리를 두고 한 줄기는 국부의 뿌리고, 한 줄기는 빨갱이 뿌리로 모는 것은 파렴치한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지나자 이제는 국민이 그때를 잊었다고 생각했던지 지금 이승만 추종 세력은 거짓 역사를 꾸미느라 바쁘고, 슬그머니 국부론을 띄우고 있다. 국부에 대한 정의는 이미 내린 바가 있다. 감히 국부의 정의를 내릴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국부는 반드시 이 정도의 품격은 있어야 국민적 추앙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내 신념이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14일까지 미국의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3곳에서 잇달아

‘건국대통령 이승만 재조명’이라는 강연회를 열었다고 한다. 재미교포 400여명이 참석한, 제법 성황을 이룬 집회였는데 교민들은 분노와 한탄, 규탄을 쏟아냈다고 한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다니... 생일도 모르는 나라가 무슨 경제대국!”이라며 우국충정을 터뜨렸다고 했단다. 정작 창피해서 분노와 한탄을 해야 하는 쪽은 역사의 진실을 배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제 나라 생일도 모르고 있었다니! 알려주겠다. 소귀에 경 읽듯 골백번도 더 말한 바가 있거니와 대한민국의 생일은 1919년 4월 13일이다. 그날 이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을 뚫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날이다. 심정적으로는 헌법 전문에서 이른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한 이 날이 건국일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의 형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외 대표가 모여 통합정부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선포한 4월 13일이 건국절이라 규정하는 것이 역사에 합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으로부터 범죄 행위로 판정 받은 일제의 강점기간은 원인 무효가 되며, 이로써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침략군에 맞서 주권 회복의 성전을 펼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의 역사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

1948년 8월 15일은 일제에 짓밟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끈질긴 힘으로 지켜온 나라를 국제연합의 결의와 축복 속에 새로 부활한 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집착하느라 백태가 낀 세력은 눈을 똑바로 뜨고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헌법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거기에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명문화 돼있고, 제헌국회 의장 이승만 박사가 세계 만방에 선포한 법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 살면서 헌법을 도외시하는 것은 수치요, 나라 망신이다. 이 집회에는 교민사회에서 꽤나 학식을 갖춘 인사가 연사로 나섰다. 미국의 눈에 나라의 생일도 모르는 이 집회가 어떻게 비쳐졌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는 것은 우리이다. 이 자리에는 연사들이 이승만 띄우기 여러 가지 비화를 들고 나왔다. 안보길 뉴데일리 대표라는 분은 1960년 4월 19일 아침 서울대 문리대를 출발해서 중앙청까지 시위를 벌였던 ‘4.19세대’라고 자기소개를 한 후, 4.19혁명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화를 꺼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인의장막에 가려 3.15 부정선거와 4.19 시위대에 대한 발포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 대통령은 4월 25일 서울 대학병원을 찾아 부상 학생에게 ‘장하다.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라고 격려했습니다.”라고 말하고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위를 설명했다. 그대로 옮겨 보겠다.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나섰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 죽여 놓고 무슨 헛소리들이냐고 장관들을 꾸짖고



긴급한 해결책은 내가 그만 두는 것뿐이라며 4.19 일주일 전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 문병을 마친 후, 각 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피해, 내가 창피해”라며 만류를 완강하게 뿌리치며 하야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라고 숨겨진 얘기를 털어놓고 ‘85세 대통령이 측근들의 장막에 가려 있었던 것은 비극’이라며 4.19는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든 결정타가 됐지만 오히려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국민의 등장을 확인하고 자진 하야한 마지막 성공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조이고 역사 진실을 농락하는 교활한 아전인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객이 말하는 비화라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끝내주는 신파극 느낌이 든다.

청중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셔서 사실인양 하는 의도 같으나 시공(時空) 상 아귀가 맞지도 않으며, 사리에 전혀 맞지도 않다. 백보를 양보해서 사실이라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장장 12년에 걸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그의 독재악정에 비하면 한 조각 편린(片鱗)에 불과할 뿐 이승만 평가의 기준에 들 수도 없다. 이 논객들은 이승만 정권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독재 12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얼룩진 폭압정치를 모를 리 없을 터, 평가의 기준은 엄격한 사료에 근거한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지 한 조각 공(功)으로 과(過)의 전부를 덮으려 하는 것은 역사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진정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면 조국의 실정을 보라. 이 조국은 주변이 강국에 둘러 쌓여있어서 국난이 끊길 날이 없었고, 좁은 국토에 자원 빈국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육이요, 인재 양성의 길 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세계 으뜸 교육열이 있어서 10년이 넘는 긴긴 세월 기러기 인생을 참아가며 강성 대국 미국에 자식을 보내 등이 휘도록 받쳐주고 있다. 강국의 기운을 듬뿍 받아 교육이라는 에너지를 충전해서 나라의 동량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되는 꿈나무들이 미국이라는 풍요한 토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일부 교민 의식이 이렇게 비뚤어진 모양을 보니 혹시라도 구정물이 튀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이들 논객의 잘못된 논조를 조목조목 짚어서 바로 잡아보려고 한다. 뉴데일리 대표라는 분은 4.19 데모 대열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나 또한 시민 대열에 있었다. 내가 본 시각과 이분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어느 한 쪽이 진실을 잘못 인식했든지, 아니면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로 다른 관점을 짚어보겠다. 학생 데모 대열에 동참했다는 이 논객은 중앙청 앞에서 멈춰 있다. 정작 경무대까지 뚫고 나간 중요한 데모대 통로는 끊어 났다. 중앙청 앞에는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무대로 진출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총칼에 맞고 쓰러졌다. 기록에 의하면 사망 120여 명, 총상 7천여 명, 667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이 난관을 뚫고 경무대 정문 앞까지 간 것이다. 가히 천지가

요동치고 충소리가 콩 볶듯 했다. 이 논객이 데모의 핵심 요소를 빠뜨린 것은 진실 공방의 요점을 빼서 사태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렇듯 경무대 앞에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니 요즘 젊은 신세대 하는 말로 흥, 찻, 뽕이다. 경찰 발포로 분노하는 시민과 학생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자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무장군인으로 제압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증거다. 젊은 학도들의 희생이 늘어나자 더 큰 불상사를 우려한 대학교수단이 플랜카드를 치켜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우리의 강력한 우방 미국이 성명을 발표하고, 4.19항쟁은 정당한 행위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사태는 이미 계엄령으로 제압하려는 정도를 넘어섰고,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 야당뿐이었다. 소요사태가 수습 불가로 악화되자 대통령은 비로소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겠다고 수습책을 내놓았다. 판국이 이 지경이 되면서도 대통령은 은연 중 내 죄가 아니고 장관들 잘못이라며 잔피를 부리고 있었다. 국회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며 책임의 정점에 있는 규탄 당사자가 빠진 대통령의 수습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대열은 시시각각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사면초가에 몰린 독재자는 비로소 하야 성명을 발표한 것이 하야 경위의 진실이다.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발생한 지 한 달 이상이나 끈뒀다. 이 연사는 대통령이 인의장막에 갇혀 아무것도 몰랐다면 당시를 목격한 우리에게 실소를 하게 했다. 민중 항쟁의 근원이었던 정부통령 선거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되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기는 5월말이었는데, 이 법정 날짜를 어기면서 3월 15일로 앞당긴 이유를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총선, 대선은 유엔이 터 준 시기에 따라 5월에 실시되어 왔다. 그러던 것을 갑자기 3월 15일로 앞당겼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야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지병이 악화되어 수술치료차 미국으로 떠난 사이 ‘이때다!’ 하고 후다닥 해치운 조기 선거였다. 이는 누가 봐도 부도덕한 더티 플레이였다. 대통령은 농번기를 피하는 것이라며 헌법 준수를 촉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조기 선거를 감행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정을 깔고 대선에 나선 것이다. 야당 후보 측 선거 유세를 봉쇄했고, 폭력 조직과 경찰 관권이 전면에 나서 야당을 짓눌러 피투성이가 된 난장판 선거였다. 이런 선거판을 신문에서 연일 대서특필 보도했고, 선거 내내 국민이 공포 속에 떨었는데 대통령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의 논조는 이승만 비호 찬양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나 이것이 도리어 이 박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세상물정을 모르는 까막눈, 귀머거리가 어떻게 국정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논객은 이 박사가 김주열군의 시신 사진이 찍힌 보도를 보고서야 사태를 알았고, 4월



12일에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장관들을 꾸짖었다고 그걸 비화라고 말했다. 김주열 학생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른 것은 4월 11일 밤,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은 너무도 끔찍하여 인의장막은 필사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도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치상 맞는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첫 보도가 나가는 날, 바로 알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인의장막에 가려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은 시간상 아귀가 전혀 맞지 않은 허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의도는 장관을 꾸짖는 정치기교를 연출해서 “나는 몰랐다. 고로 나는 결백하다.”는 쇼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노획한 술수였다고 보는 것이 정답 같다.

대통령은 데모대의 함성을 듣고 사태 보고 차 경무대에 들어온 계엄사령관 송요찬 중장에게 “바깥에서 나는 저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고 물었다. 분노하는 민심의 까닭을 몰랐다는 능청을 떠 것인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었다. 그의 말은 소리를 들었으면 총소리를 당연히 들었다는 속내만 들켰고, 사태의 표적에서 빠져 나가려는 교활한 성정만 들어내고 말았다. 잔 구실을 꾸며서 이 박사를 감싸기에는 너무도 많은 범죄적 통치를 역사에 남겼다. 그를 덮을수록 참담하게 들추는 것이 되니 특정에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는 털고 탁 트인 안목으로 넓혀보는 시각으로 정사(正史)를 봤으면 한다. 역사는 희언(戲言)의 금지 구역이다. 일과 성 거짓에 끝나지 않고, 후손 대대로 속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를 우격다짐으로 난타한 그때 그 정권은 몰락했고, 국민의 분노와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역사의 심판은 진작에 끝났다는 얘기다.

나만이 아닌 남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질서다. 남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부론을 꾸밀 수는 없다. 억지는 그 정권이 12년간 원대로 부렸고, 국민은 진절머리가 나도록 당했다. 바로 그 억지가 화근이 되어 제1공화국은 국민의 거대한 봉기 물결에 쓸려 없어지지 않았던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느라 아등바등했던 제1공화국의 모습이 애처롭게 떠오른다. 

## 부산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통 소고



강 대 민  
경성대 부설 한국학연구소장

부산은 최초의 개항장으로 일본인이 처음으로 활동한 무대이기도 하였으며 일찍이 식민지 침략의 발판이었다. 그리하여 부산은 심하게 경제, 사회, 산업 등이 모두 일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부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통제와 취체는 다른 그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 악랄했다.

부산은 일제의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전통의 고장이기도 하다. 멀리는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당시 생성된 항일독립정신은 일제강점기 전시기로 내내 이어졌다. 즉 부산에서는 3·1운동 이전부터 백산상회의 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조직적인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1운동 당시에는 각계각층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또한 1920년대의 청년운동과 부두 노동자들의 항쟁, 인쇄 직공 노조의 총파업,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쟁의, 신간회 운동, 1930년대의 적색 노동조합 건설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항일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박재혁 열사, 오택, 최천택 선생 등의 항일투쟁,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부산은 훌륭한 항일독립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으며, 그 흔한 상징물조차도 변변하지 않았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복 50년을 계기로 다채로운 행사와 항일독립운동의 귀감에 대한 상징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산항일학생의거(일명 노다이 사건)를 기리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4년에는 교육문화회관 광장 내에 기념조형물을 세웠다.

이를 기념코자 매년 11월 23일 동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부산지역 독립운동관련 학술세미나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산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

### 1) 유공자 포상현황과 사적지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의의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하신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하여 서훈’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훈을 받은 사람은 1만여 명을 넘어서었다. 경남지역에서는 787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있으며, 부산은 79명으로 나와 있다. 이 같은 통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 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더욱이 향후 우리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수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2006년 12월 현재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훈·포상자는 모두 396명이다. 물론 이들 모두가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부산출신은 아니다.

경남 지역 훈·포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전국, 부산·울산·경남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01년 8월 15일 현재)

| 훈격별<br>지역별 | 총계    |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      |      |     |       |       | 건국공훈 |       | 비고                |
|------------|-------|-------------|------|------|-----|-------|-------|------|-------|-------------------|
|            |       | 소계          | 대한민국 | 대통령장 | 독립장 | 애국장   | 애족장   | 포장   | 표창    |                   |
|            | 8,855 | 7,425       | 30   | 92   | 774 | 2,895 | 3,634 | 363  | 1,067 | 2000년<br>1월 1일 현재 |
| 경남<br>전체   | 787   | 582         | -    | 3    | 31  | 155   | 393   | 53   | 152   | 부산·울산을<br>포함한 경남  |
| 부산         | 79    | 52          | -    | 1    | 5   | 14    | 32    | 7    | 20    |                   |
| 울산         | 56    | 36          | -    | -    | 1   | 10    | 25    | 3    | 17    |                   |
| 순수<br>경남   | 652   | 494         | -    | 2    | 25  | 131   | 336   | 43   | 115   | 부산·울산을<br>제외한 경남  |
| 마산         | 39    | 35          | -    | -    | 2   | 9     | 24    | -    | 4     |                   |
| 창원         | 41    | 24          | -    | -    | 1   | 5     | 18    | 3    | 14    |                   |
| 진해         | 2     | 1           | -    | -    | -   | 1     | -     | -    | 1     |                   |
| 진주         | 43    | 32          | -    | -    | -   | 7     | 25    | 7    | 4     | 이하 생략             |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의 의의를 ‘독립운동사적지를 조사하여 애국심과 향토에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국내 사적지 현황과 동상 및 기념비 현황’은 비록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니지만 사적지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참고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부산에 존재하는 동상 및 기념비는 강서 8, 중구 5, 부산진구 3, 동구 2, 동래 2, 북구 1, 서구 1, 기장 1, 수영구 1, 남구 1, 영도구 3기로 도합 28곳에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항일독립운동 관련한 동상 및 기념조형물은 모두 25기로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부산항일학생의거는 일제의 전시 체제하에서 전개된 최후의 대규모 학생 투쟁으로 발생 당시 일제의 보도관제로 말미암아 타지방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도만 될 수 있었더라면 광주학생운동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인정되어 2004년 11월 23일 부산진구 소재 교육문화회관 광장 내에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탑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관련 동상 및 기념조형물 현황

|     | 개 수 | 동상 기념조형물           | 위 치         | 항일독립운동 | 비 고                  |
|-----|-----|--------------------|-------------|--------|----------------------|
| 강서  | 5   | 남강조정환선생 흉상         | 대저2동공향로입구   | 만주     |                      |
|     |     | 남강조정환선생구국기적비       | 미음동 114     |        | 창녕조씨 재실내             |
|     |     | 이수강선생 흉상           | 대저2동공향로입구   | 청년회    |                      |
|     |     | 김근도선생 흉상           | 천가동 성북마을    | 일본     | 가덕도 선창마을             |
|     |     | 항일무명용사 위령비         | 녹산동 장락마을    | 학도병    |                      |
| 북구  | 1   |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     | 낙동강 제방      | 3·1운동  |                      |
| 부산진 | 3   | 박재혁의사 동상           | 어린이대공원      | 의열     |                      |
|     |     | 박재혁의사 기념비          | 부산진 초등학교    |        |                      |
|     |     | 부산 항일학생의거 기념탑      | 교육문화회관 광장   | 학생운동   |                      |
| 동구  | 1   | 최천택 추모비            | 좌천동 옥성사내    | 신간회    |                      |
| 동래구 | 4   |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 마안산 체육공원    | 3·1운동  |                      |
|     |     | 항일독립운동기념탑          | 동래고등학교내     |        |                      |
|     |     | 일제만행희생자위령비         | 금강공원 내      | 일제징용   |                      |
|     |     | 애국지사월성박공임갑기적비      | 안락2동 산19-2  | 3·1운동  | 월성박씨 동래문중 재실         |
| 기장군 | 3   | 3·1운동 의거비          | 정관초등학교내     | 3·1운동  |                      |
|     |     | 이명순의사공적추모비         | 철마 안평리      | 해외     |                      |
|     |     | 박영준의사기념비           | 일광면 칠암마을    | 3·1운동  |                      |
| 해운대 | 1   | 애국지사 강근호선생 추모비     | 좌동 산 1      | 해외     | 육군 제53사단 건립          |
| 중구  | 3   | 소해 장건설 동상          | 대청동 218 공원내 | 임시정부   | 동상과 흉상이 바뀌어 있음(용두산?) |
|     |     | 백산 안희제 선생 흉상       | 용두산공원내      |        |                      |
|     |     | 검정다리추억비            | 보수동 1가 8-3  |        |                      |
| 남구  | 1   | 애국지사순홍안찬복공 추모비     | 동천고등학교내     | 평남3·1  | 복역 중 순국              |
| 금정구 | 4   | 박차정의사 동상           | 금정문화회관 옆    |        | 유관순과 같은 훈격           |
|     |     | 일신여학교만세운동기념비 (범어사) | 동래여고 교내     |        |                      |
|     |     | 3·1운동유공비           | 금정중학교내      |        | 1970                 |
|     |     | 범어사 3·1운동유공비       | 범어사 앞 하행길   |        | 1995                 |
| 소 계 | 10  |                    |             |        |                      |

2)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선양사업

부산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의 전통과 계승 등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부산보훈청에서 그간 정리한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 호국보훈의 달인 6월, 6·25, 8·15광복절, 순국선열의 날과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일이 있는 11월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주관별로는 시·구·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언론사·문화원·청소년 연맹 등 각 민간단체, 교육청·학교 등의 교육 관련 기관, 부산보훈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행사명과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된 표에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물론 이 자료는 항일독립운동뿐만 아니라 8·15 해방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신장한다든지, 민주운동 등의 선양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3〉 지방자치단체(시·구·군 등) 주관 선양사업

| 주관기관  | 사업명            | 사업의 주요내용                                                                               |
|-------|----------------|----------------------------------------------------------------------------------------|
| 부산광역시 | 3·1절 기념식       | · 헌화 및 분향<br>· 시장, 청장, 보훈단체장, 시민, 공무원 등 2,000명<br>· 영화상영<br>· 340명 위로금 지급              |
| "     | 충렬사 참배(3·1)    | · 임진왜란 순국선열 참배<br>· 헌화 및 분향<br>· 시장, 청장, 보훈단체장 등 20명                                   |
| "     | 시민의 종 타종       | · 3·1절 기념 시민의 종 타종<br>· 33회 타종(참석시민 타종 시 태극기 흔들기)<br>· 시장, 청장, 기관, 단체장, 보훈단체장, 시민 등 참석 |
| "     | 독도사진전 및 자료 전시회 | · 독도사진 및 자료 50여 점 전시<br>· 개회식, 테이프 커팅, 관람<br>· 시장, 보훈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 참석                |
| "     | 인터넷 퀴즈         | · 우리고장 항일독립운동사 알기퀴즈(시 홈페이지)<br>· 10명 추첨 기념품 전달(시민의 종모형)                                |
| "     | 4·19혁명 기념식     | · 기념식, 위문금 전달<br>· 부산시장 및 주요기관장, 보훈단체장, 시민, 학생 등 700여 명                                |



|       |                       |                                                                                                            |
|-------|-----------------------|------------------------------------------------------------------------------------------------------------|
| "     | 4·19민주혁명희생자<br>위령탑 참배 | · 4·19민주혁명희생자 추모<br>· 참배, 4·19관련 시낭송, 문화한마당 등<br>· 부산시장 및 주요기관장, 보훈단체장,<br>4·19회원 및 유족, 학생, 시민 등 100여 명 참석 |
| 금정구청  | 신정윤열사 추모비<br>참배       | · 추모사, 헌화·분향, 약력소개<br>· 국회의원, 구청장, 시민 등 100여 명 참석                                                          |
| 부산광역시 | 현충일 추념식               | · 추념식<br>· 주요기관장, 보훈단체장, 시민, 학생 등<br>7,000여 명 참석<br>· 보훈단체장 위로 오찬                                          |
| 부산광역시 | 충렬사 참배(6.6)           | · 시장, 보훈기관·단체장 등 30명                                                                                       |
| "     | UN기념공원 참배             | · 시장, 보훈기관·단체장 등 30명                                                                                       |
| "     | 모범 국가 유공자<br>표창 및 음악회 | · 기념식, 모범 보훈가족 표창(16명), 격려사,<br>음악회(민요, 판소리 등)<br>· 시장, 보훈단체장 등 700명 참석<br>· 위문품 전달                        |
| "     | 보훈가족 초청<br>음악회        | · 부산·창원시립합창단<br>(작품반주 : 부산시립교향악단)<br>· 보훈가족 100명                                                           |
| 강서구청  | 국군묘지<br>참배(가락동)       | · 전몰호국영령 추모(참배, 헌화, 분향)<br>·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명                                                             |
| "     | 국군묘지<br>참배(천가동)       | · 전몰호국영령 추모(참배, 헌화, 분향)<br>·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명                                                             |
| 부산광역시 | 광복절 경축식               | ·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6명),<br>위로금·기념품전달, 경축사, 축하공연 등<br>· 식후 영화상영(투모로우)                                       |
| "     | 충렬사 참배(8·15)          | · 임진왜란 순국열사 참배 및 헌화<br>· 시장, 청장, 보훈단체장, 시민, 공무원 등<br>30여 명 참석                                              |
| "     | 광복절 경축 타종식            | · 시장, 청장, 보훈단체장, 각급 기관장,<br>시민 등 500여 명 참석<br>· 타종(33회)                                                    |
| "     | 경축인라인 대행진             | · 주요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br>· 풍선 날리기, 풍물패 길놀이 병행                                                            |

|               |                                |                                                                                          |
|---------------|--------------------------------|------------------------------------------------------------------------------------------|
| "             | 광복절 계기<br>인터넷퀴즈                | · 우리고장 항일독립운동 역사 알기 인터넷 퀴즈                                                               |
| "             | 태극기 게양 운동<br>전개                | · 가로기, 간선도로, 경축식장 등 행사장 주변 및<br>가정 국기게양                                                  |
| "             | 사이버태극기<br>달기운동                 | · 시·구·군 홈페이지 이용<br>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
| 북구청/<br>녹지사업소 | 나라꽃 무궁화<br>바로알림 행사             | · 무궁화 전시, 배달 외 50종 480여 점<br>· 무궁화 사진전시 : 70여 점<br>· 무궁화 글짓기 대회<br>· 무궁화 그림 그리기 대회       |
| 중구청           | 독립운동 기록<br>전시회                 | · '잊혀져가는 기억, 떠도는 원혼' 사진전 개최<br>· 일제의 한국인 연행 배경, 인력수탈,<br>해방과 귀환 등 3개 주제<br>· 40여 점의 사진전시 |
| 북구청           | 광복절 기념<br>구민체육대회               | · 구민축구대회<br>· 구민 500명 참석                                                                 |
| 강서구청          | 광복절 기념<br>동민체육대회               | · 6개동 대항 경기(씨름, 축구, 배구, 릴레이,<br>줄다리기, 노래자랑 등)<br>· 6개동 주민 3,450명 참가                      |
| 부산광역시         | UN의 날 기념식 및<br>해외참전용사<br>재방한사업 | · 기념식 : 기념사, 추념사, 헌화<br>· 해외참전용사 유가족 개별묘역 헌화·참배<br>· 부산시 주최 오찬                           |

〈표 4〉 부산보훈청 추진 선양사업

| 사 업 명           | 사업의 주요내용                                                             |
|-----------------|----------------------------------------------------------------------|
| 충혼탑 참배(3·1)     | · 충혼탑 참배<br>· 보훈단체 지회장 및 임원, 보훈가족 등<br>100여 명 참석                     |
| 국가와 보훈강연 특강     | · 호국보훈 및 안보의식 고취<br>· 각급 학교, 군부대, 민방위대원·동원예비군 기관,<br>기타 등 20회 2,407명 |
| 청소년<br>보훈문화체험탐방 | · 현충시설 탐방, 헌화·참배 및 정화활동,<br>「국가와 보훈」 강연, 영상물 상영 등<br>· 5개교 1,340명 참가 |

|                   |                                                                                                                                                                                                |
|-------------------|------------------------------------------------------------------------------------------------------------------------------------------------------------------------------------------------|
| 현충일 추념 국제 어린이 백일장 | · 기념식, 대회사, 글짓기대회<br>· 시상인원 :104명(처장상 2명)<br>· 초등학교 3,000명 참가                                                                                                                                  |
| 부일보훈대상            | · 기념식, 격려사, 시상식<br>· 장한용사, 장한아내, 장한유족, 장한미망인, 특별대상 등 5명<br>· 기관 · 단체장 등 300명 참석                                                                                                                |
| 기업체 임직원 간담회       | · 국가유공자등의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 보호 업무 수행에 반영<br>· 년 2회 개최, 60개 업체 참석                                                                                              |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 · 현충시설 탐방 및 정화<br>· 부산3·1독립운동기념탑, 충렬사 유엔기념공원, 복천박물관(발굴현장 등), 충혼탑,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 민주공원, 부산시립박물관<br>· 11개교 초 · 중 · 고교 2,653명 참가                                                                 |
| 참전유공자 호국순례        | · 6·25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br>·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투 전첩비, 거제포로수용소, 통영상륙작전기념비, 통영3·1운동기념비, 통영시충혼탑,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등<br>· 참전유공자, 교육관계자, 청소년 등 170명                                                               |
| 대외유공자 표창 전수식      | · 보훈업무 수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대외유공 인사<br>· 수상자(9명)                                                                                                                                                  |
| 청소년 보훈캠프          | · 충혼탑, 대한해협전승비, 가덕도 국군묘지 등 참배 및 현화, 광복기념관 관람<br>· 극기훈련 :가덕도 연대봉 등반<br>· 국가와 보훈특강, 참전용사와 대화의 시간, 르노삼성자동차 견학, 부산경남본부세관 견학, 현충시설 정화활동, 문학의 밤, 캠프파이어 등<br>· ‘나라사랑의 길’ 분임별 토의 · 발표<br>· 고교생 120명 참가 |
| 연수교육              | · 본인반, 미망인반, 호우회반, 중 · 고교반<br>· 국가유공자 · 유족 자긍심 고취<br>· 친목도모 및 공동체의식 제고<br>· 75명 참가                                                                                                             |

# 백세청풍(百世淸風) 일송 장현식 선생을 기리며



장 상 록  
칼럼니스트

“갈 끝을 향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전사의 용기요, 자신의 운명을 알고 큰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다.”

공자가 말하는 임난불구(臨難不懼)다. 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사는 바로 그런 수많은 전사와 성인의 용기로 써 내려온 피의 기록이다. 후손인 우리가 그 것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물론 미래에 대한 경계와 비전을 제시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또 하나의 꼭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사와 성인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이다. 그 대상 중엔 이미 알려진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깊이는 다르지만 양자에 존재하는 공통영역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생텍쥐페리(Saint Exupery)의 말처럼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탬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한국사, 그 중에서도 질곡으로 점철된 근현대사에는 과연 더 이상 뺄 것이 없는가. 현실은 보탬 것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방금 지나온 곳을 되돌아 가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 그렇다. 때론 사진 한 장이 화려한 동영상 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국주의 시대 약소민족이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건 아프지만 냉엄한 사실이다. 하지만 해석은 사실과는 다른 영역이다.

그것은 성패 이전에 민족정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성패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남는 것은 자존과 성취가 아닌 모멸과 허무로 귀결될 수 있다. 과연 우리에게 독립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있어서 핵심논리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것이다. 논리적 귀결에 따라 티벳, 신장, 내몽고, 대만은 물론 역사적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성했던 동북삼성(東北三省)의 모든 역사가 중국사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고구려도 그 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후일 중국 영토에 변경이 생긴다면 중국사는 다시 변하는가. 이 질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과거 중국의 변경에 존재했던 수많은 독자적 역사문명권이 지금은 더 이상 그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어느새 중국사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한무제(漢武帝)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했지만 한국인은 결코 중국인이 되지 않았다. 일제(日帝)에 의해 20세기 전반 국권을 침탈당했지만 우리는 결코 일본인이 되지 않았다. 한국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다.

그리고 거기엔 임난불구의 정신으로 독립을 위해 매진한 선열들이 있다.



그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말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성패를 넘어 중국적인 독립의 물꼬를 튼 것은 외세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의 역량에 기인한다.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찾아 명예를 높이고 그 후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후손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김계 서강사(西岡祠)에는 ‘백세청풍(百世淸風)’이 자리하고 있다. 오래도록 부는 맑은 바람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맑고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곳엔 일유제(一遺齊) 장태수(張泰秀) 선생이 모셔져 있다. 선생은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해 일제(日帝)가 소위 은사금을 가져오자 일제에게 호통을 쳐 내쫓는다. 계속되는 일제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그가 택한 것은 순국(殉國)이었다.

선생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내가 두 가지 죄를 졌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는 데도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니 불충(不忠)이요, 이름이 적(敵)의 호적에 오르게 되는 데도 몸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선조(先祖)를 욕되게 하였으니 불효(不孝)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두 가지의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이미 늦었다.” 결국 27일간의 단식 끝에 순절한다.

호남을 대표하는 두 가문 좌박우장(左朴右張)의 서도장씨(西道張氏) 가문에 사간원 대사간, 시종원 부경까지 역임한 고관이었지만 그가 순국한 곳은 초가(草家)였다. 남강정사(南崗精舍)는 지금도 선생의 우국애민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런 선생이 순국하기 전 한 아이에게 가문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당부의 글을 남긴다. 그가 종손(宗孫)인 일송(一松) 장현식(張鉉植)이다.

일송은 일유제의 유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한다. 약관의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하지만 일제의 회유와 협박은 일송에게도 계속된다. 일제의 주구인 소위 자성회(自省會) 참여를 강권당한 것이다. 이에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인연을 갖게 된다. 바로 전협(全協)과의 만남이다. 전협은 비밀결사 대동단(大同團)의 핵심인



물이었다.

대동단은 민족의 전면적인 참여를 통한 독립운동의 기치아래 전국 각계각층을 망라한 11개 사회 대표자로 조직된 항일단체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지도급 인물 중 일부가 전일진회(一進會) 회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전협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수많은 우국지사(憂國之士)들이 후일 변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일제의 주구가 아닌 독립운동가로 기록하고 있다.

전협에게서 대동단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들은 일송은 거금 3천원을 이진호에게 교부한다. 결국 이 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그가 재정을 담당한 대동신문 역시 독립운동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된다.

당시 시가 17만원 상당에 달했다는 그의 만석꾼 재산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조국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된다. 그가 재산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다. 모친은 일송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자고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을 죽이고 이익을 차지해 치부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다. 그것은 도적이다.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고 남에게 후덕하고 내겐 인색하여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룬다면 진짜 부자인 것이다.” 일송은 상해임시정부에는 독립자금을 제공하고, 청년인재 양성과 언론을 통한 독립정신 고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려대학교와 동아일보사 설립에도 크게 기여한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일송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다. 일송이 일제에 의해 마지막으로 투옥되는 사건이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그는 조선어사전 편찬자금으로 3천원을 제공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해방 될 때까지 함경도 흥안 경찰서에 수감된다. 이때 일경은 일송의 허에 대못을 박는 고문을 자행하는데 이 일로 그는 여생을 말더듬이로 살아야 했다.

해방 후 전라북도 2대 도지사에 취임했지만 대쪽 같은 성격은 그를 백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후 6·25 직전 치러진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다. 그때 일부의 입에서 그를 조롱하며 나온 말이 ‘말 못하는 장현식’이다. 독립과 한글을 위해 당한 고문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장애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순간이다. 낙선한 그는 명륜동

에서 6·25를 맞게 되는데 이 때 김일성이 직접 지시한 ‘모시기 작전’ 대상에 포함돼 납북된다.

아들의 납북 소식을 들은 그의 모친은 매일 정한수를 떠 놓고 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왜 이리 더디느냐. 세월이 어서어서 흘러가면 내 아들 상봉 날도 오리라. 마당 향나무에서 요란하게 까치가 지저귀니 반가움으로 행여나 하고 방문을 열어젖히니 까치는 놀라 날아가 버리고 내 눈물만 소복이 고이더라.”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장현식은 현재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등과 함께 평양 재북인사묘역에 잠들어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일 일송의 아들 장홍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그를 기렸다.

일송은 남과 북 모두에서 인정받는 많지 않은 애국지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종조부인 일유제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맘을 담아 서장사를 세우고 ‘백세청풍’이란 현판을 올려 숭고함을 기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일송에게도 같은 현사를 담아 보낸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논(Zenon)의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은 이렇다. “죽은 자들과 어울려야 한다.” 

## 3·1절 96주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해본다



윤 경 로  
3·1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 등과 함께 국경일의 하나로 '3·1절'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3·1절'이라는 명칭에는 '제헌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그날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 '3·1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매우 무미건조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한 '3·1운동'이라 지칭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좀더 부각시키고 提高하자는 대안의 하나로 '3·1혁명'으로 명명하자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었다. 3·1운동 95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해 2월 26일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3·1혁명95주년기념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회의의 주된 '화두'는 3·1절을 '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모아졌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 주제 발표자는 '3·1혁명의 재인식'이라는 부제 하에 '운동인가 혁명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1919년 '만세사건' 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를 '동학난'이라 불리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당대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에

서 볼 때 그것은 '폭동'이고 '난'이었다. '동학난'이라는 용어가 사건 당시는 물론 일제시대를 거쳐 심지어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그렇게 불렸음은 우리의 역사인식이 그만큼 치자(治者)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3·1운동'이라 불려온 것을 '3·1혁명'으로 그 의미를 보다 격상시켜보자는 주장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있다 할 것이다. 역사적 용어로 '운동'이라하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이를 운동이라 한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역사적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투쟁', '항쟁', '혁명'이라는 의미에 비해 운동성과 역사성이 덜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 간 '3·1운동'으로 불려왔기에 귀에도, 입에도, 눈에도 익숙한 것에 반해 '3·1혁명'이라는 용어는 생경스럽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해석학이다'라는 말이 있듯 역사적 사실(facts)은 변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작금에 '3·1운동'을 '3·1혁명'으로 높여 보자는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3·1운동'을 지칭하는 명칭은 수차 바뀌었다. 사건 당시 '소요', '폭동'에서 '운동'과 '혁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진영에서였다. 1920년대 말 1930년대까지는 '3·1운동'과 '3·1혁명(운동)'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1930년대 말 정확하게 말해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후 보다 본격적인 독립전쟁과 혁명적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인식도 고무되어 이후로는 이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1938년 장사에서 거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서 그러했고 같은 해 4월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기사에 '3·1대혁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1941년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광복>지 1941년 2월 창간호에서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全民) 대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후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자주 볼 수 있다. 1943년 6월 재 창간된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세계 제1차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운동이 발생했다"는 요지의 창간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후 기사에서 '3·1대혁명'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해방직전인 1944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전략)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한 뒤에 전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후략)

이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3·1혁명’ 혹은 ‘3·1대혁명’으로 부르며 ‘운동성’ 보다는 ‘혁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변함이 없어 이승만과 김구 등의 연설에서 ‘3·1혁명’ 혹은 ‘3·1대혁명’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초안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초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고 말았다.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조국현(의원)은 “일본에게 빼앗겼든 그놈을 광구(廣求)하자는 운동인 만큼 ‘항쟁’이라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다. 이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과 갑오(甲午)운동은 혁명이나 일본하고 항쟁한 것은 혁명이 아니다”고 하면서 ‘혁명’이라 하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이승만(의장)이 “내가 절대 찬성합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이전까지 ‘3·1혁명’ 용어를 즐겨 썼고 초안에 동조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후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평소 ‘3·1운동론’을 지지해온 한민당 주장대로 ‘3·1혁명’이 ‘3·1운동’으로 최종 수정 통과되었다.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소요’에서 ‘운동’으로 다시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운동’으로 회귀되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된 ‘3·1운동’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용어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은 ‘운동’ 차원을 훨씬 넘는 ‘혁명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수 천 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 되는 민국’을 세운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1혁명’이라 칭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3·1절’ 96주년을 맞으며 ‘3·1거사’를 다시 생각해본 것이다. 

## 민족교육의 선구자 나의 아버님 “학산 윤윤기” 선생을 그리며



윤 종 순  
학산 윤윤기 선생 자녀

### 보고 싶고 그리운 아버님!

입춘이 지나니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이제 봄인가 싶지만 바깥세상은 아직도 한 겨울인 듯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품안에서 한없는 재롱과 어리광 한번 부리지 못한 채 어느새 일흔 다섯해의 봄을 맞는 둘째딸 종순이가 아버님 영전에 이렇게 붓을 들어 편지를 올립니다. 평생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동분서주 하시며 민족교육의 올곧은 길을 향해 뛰시던 아버님이 대관절 무슨 죄로 신 한 살의 나이로 철사 줄에 묶인 채 처참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아버님의 나이를 훌쩍 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여식은 그 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심정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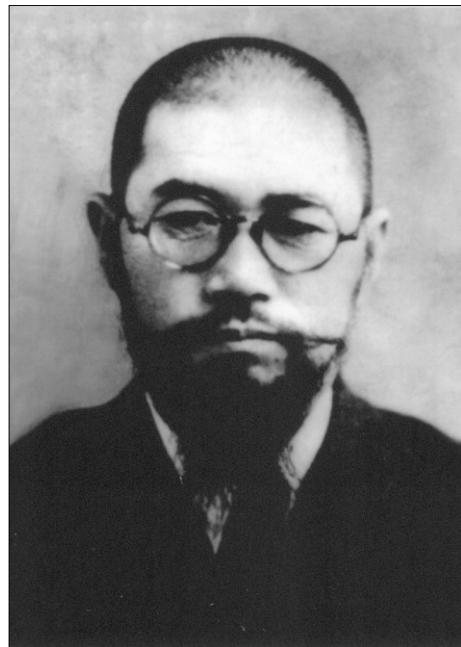
“옥돌은 가루로 만들어도 색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조선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아버님의 제자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아버님에 대해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조선인들은 옥처럼 푸른빛을 간직한 채 험난한 일



제강점기를 헤쳐 나와 기필코 조국을 되찾았으며 아버님이 바라던 민족교육의 위업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뛰어 왔습니다.

## 아버님!

2013년 10월 22일은 광주교육대학에서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침략기에 민족교육의 선구자이신 아버님의 속 깊은 뜻을 기리고자 후배들이 아버님의 흉상을 만들어 그 제막식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구릿빛 모습의 아버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한 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버님이 1950년 7월 21일 보성군 미력면 예재 고갯길에서 처참히 운명하신 날로부터 65년만의 일이에요, 훈도(교사)로 교육자의 길을 걸으신 날로부터 꼭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 학산 윤윤기 선생

학문을 산처럼 이루겠다는 아버님의 호 학산(學山)이야말로 당신의 오십 평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당국의 눈을 피해 민족교육과 민중계몽을 실시하고 몽양 여운형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자였으며 한국 최초로 무상교육기관인 '양정원'을 설립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배움의 문을 연 근대교육의 선구자셨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2007년 한길사에서 『민족의 참 교육자 학산 윤윤기』라는 책이 세상에 선을 보였을 때 저는 아버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아버님의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관을 세세히 들을 수 있어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의 부활을 보는 듯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신학문을 배워 훈도(訓導, 교사)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때는 이미 나라를 빼앗긴 뒤라 황국신민 양성을 위한 총독부의 지침 하에서 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고 일제의 눈을 피해 한글과 국사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것은 목숨을 내건 일이

였지요. 첫 부임지인 안양공립보통학교를 거쳐 교사(校舍)도 없는 천포간이학교에 부임한 아버님은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정규과정은 물론 취업 교육반과 야학까지 꾸리는 등 밤낮 없이 교육에 매진했다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더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아버님께서 박봉을 쪼개어 마을 주민 가운데 출산하는 임산부가 있으면 쌀과 미역을 사서 보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운명하셔서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아버님의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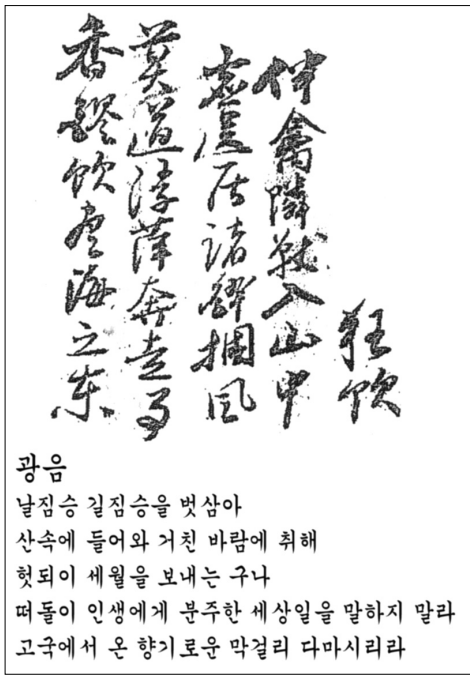
## 그리운 아버님!

아버님은 1939년 천포간이학교를 떠나 점점 더 가혹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마음껏 민족교육을 펼치기 위해 사설학교 설립을 결심하셨지요. 당시는 15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일왕의 은급(恩給)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아버님은 그것을 뿌리치시고 사표를 낸 뒤 봉강 정해룡 선생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유지들의 도움으로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 무상교육기관인 양정원을 세우셨습니다. 양정원은 모두에게 열린 학교로 단 한 톨의 월사금도 받지 않는 파격적인 무상교육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최초의 무상학교라고 일컫습니다.

식민지하에서 민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아버님은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경제권을 확보하고자 광산업에 손을 대어 생긴 돈을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셨지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중국을 드나드시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것을 보면 정말 아버님은 신출귀몰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어렵사리 찾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극심한 좌우 혼란기를 맞이했으나 아버님은 분단을 막고 좌우가 하나로 어우러진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여운형 선생과 뜻을 함께하며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근로인민당·시국대책협의회(시협) 등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민족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아버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좌경성향의 친지들을 챙기며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좌와 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옳게 한길을 걸어온 자신의



▲ 학산윤윤기선생 국격을 넘나들며 7편의 자필한시 중 한편의 한시와 번역

한땀삼을 자면서라도 교육자이신 아버님의 생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동생들을 챙겼고 저 역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차비도 아까워 을지로에서 미아리 고개에 있던 서라벌예술대학 까지 걸어 다니던 때의 고생이란 சொ설로도 다 쓰지 못할 일이지만 그런 어려운 고비마다 아버님은 제 인생의 등불이셨습니다. 아니 캄캄한 밤하늘의 밝은 별로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자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스스로 대견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의 삶은 투철한 민족교육자였던 아버님의 삶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요.

아니 그런 개인사적인 일보다도 사실 아버님께 부끄러운 것은 아버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통일조국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채 통일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지금 저는 너무도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던 둘째 딸 중순이는 올해 일흔 다섯입니다. 아픈 곳도 많고 기

삶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익 경찰은 그런 아버님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1950년 7월 21일 참살이라는 극단의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우리 가족의 비통함을 무어라 말해야할지요.

### 아버님!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철사 줄에 묶여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형상의 주검을 보아야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더구나 어머니는 임신 중이셨으니 그 한 많은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님 학살 이후 어머니도 오래지 않아 돌아가시고 저는 열일곱 나이에 어린 두 동생의 가장이 되어 이날 까지 살아왔습니다.



▲ 학산 윤윤기선생 홍상 제막식

억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아버님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삶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뜻을 이어가려고 지금도 열심히 헌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소원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 통일의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실망치 않고 살아가렵니다. 그것은 아버님 살아생전에 꿈꾸던 세상이었으며 아버님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을 실천하신 것도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기에 저 역시 포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립고 또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얼마 전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사 한토막이 떠오릅니다.

“저 열심히 살아왔지요” 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을 아버님과 어머니께 여쭙며 붓을 놓으려합니다.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하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신신당부하신 두 동생을 잘 키우고 아버님의 생애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으니 아버지, 어머니!

“둘째 딸 중순이 저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2015년 입춘 다음 날

둘째 딸 중순 올림

## 용암처럼 끓어오른 탐라의 햇불 ‘김옥련’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태고적 탐라는 신들의 고장  
부정을 멀리하고  
흰 옷 입은 백성 고이 살던 곳

어느 해 승냥이 나타나  
총과 칼 휘젓고 다니면서  
숨비소리 거친 물질로 캐낸  
소녀의 꿈 산산조각 났네

해녀의 목숨 바쳐  
조국을 건질 수 있다면  
젊은 피 어이 쏟지 않으리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핏빛 분노 햇불되어 탐라를 비추었네

김옥련 (金玉連 1907. 9. 2 ~ 2005. 9. 4)

김옥련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해녀생활을 했던 분으로 야학에서 한민족의 역사, 지리 등을 배우면서 민족의식을 싹 틔웠다. 22살 되던 해인 1929년 하도리에는 여성단체로 부인회, 소녀회 등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부인회 회장은 부춘화, 소녀회 회장은 김옥련이 맡고 있었다. 1931년 물질을 생업으로 하던 해녀들은 일본 관리들의 가혹한 대우와 제주도해녀조합 어용화의 폐단이 있자 1932년 1월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 투쟁은 조천지역의 만세운동과 무오년 법정사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도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 5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의 다수.



## 영화 <허삼관>, 역사에 대한 번안 작업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영화 <허삼관>(2014)은 배우이자 감독인 하정우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영화는 동명의 중국 소설, 위화 작가의 <허삼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분단 이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이를 번안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야기는 원작 소설의 제목과 같이 한 가족의 가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피를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건들을 소재로 한다. 비록 소설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96년으로 영화와는 20년 가까운 시차가 있지만, 매혈이라는 특별한 소재의 원작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 영화화 자체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는 번안 작업이 역시 화제가 되면서 영화와 소설과의 비교에 대해 처음부터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영화는 소설과 영화의 매체적 차이와 함께, 중국과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소설의 시작은 역시 주인공 허삼관과 허옥란의 인연과 결혼으로 시작한다. 허삼관의 첫 번째 매혈의 이유가 생기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하는 생사 공장을 배경으로 성(城) 안과 바깥사람들의 삶이 해학적으로 소설에서는 그려진다. 소설은 이 후 허삼관의 노년까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 허삼관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차례로 담아낸다. 50년대 중국의 대약진운동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60년대 문화대혁명이라는 사회적 단절이 어떻게 한 가족 안에서 반영되는가를 소설은 허삼관의 눈과 입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영화는 시작부터 관객들의 눈길을 전쟁 후 충청도 공주의 어딘가 번잡한 저자거리와 실개천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초가집들로 먼저 가져간다. 시대와 배경을 간결하게 언급할 수 있는 소설과 달리 영화는 이야기의 배경을 화면 가득 시각화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적 선택이 결국 이야기의 흐름을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게 만든다. 영화의 전반부는 근대와 현대, 전통과 서양문화가 혼재된 듯, 부분 사실적이면서도 다소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시대의 풍경으로 그려진다. 소설에서 첫째 아들 일락이의 친부 논란 사건이 여러 사건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영화에서는 그 사건이 보다 극적으로 확장되고, 영화의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갈등의 전개와 해소에서 중심이 되어야 했던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소설과 달리 한정된 시간 안에 완결된 결말과 감동을 함께 주어야 하는 영화가 원작에서 특정 사건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 영화 <허삼관> 중에서



사건과 인물의 취사선택 이면에는 영화가 원작을 쉽게 번안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번안된 영화적 배경에서는 마땅히 찾아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의 부재 혹은 의식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다. 영화에서 허삼관이 우여곡절 끝에 첫째 아들 일락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건은 관객에게나 분명히 감동적이다. 하지만 영화화되지 않은 이야기로서 소설에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누명을 쓰고 가족 앞에서 자아비판의 대상이 된 허옥란을 일락이가 비난하는 장면이 있다. 어머니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들의 마지막 이야기에 온 가족이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 대목의 감동을 영화는 왜 번안하지 못했을까. 그 사건에서 영화화할 만큼의 흥미를 감독이 찾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중국과 달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를 번안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사건을 찾지 못해서일까.

번안 작업의 사전적 정의란 원작의 내용과 줄거리를 그대로 두고 풍속과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 고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원작은 과연 어디까지 번안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느 역사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는다. 적어도 영화 <허삼관>은 원작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현대사에 대한 천착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영화는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매월기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특정한 역사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 속에 묻혀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가 한편으로 공허하게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소설의 어떤 묘사도 영화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장면만큼 시각적인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영화 매체의 그러한 특징은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극 영화들에 대중적인 파급력을 실어주었고, 동시에 그 기록과 재연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것은 매체가 가진 힘에 따르는 의무로서 현실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영화들이 고증을 통한 재연이나 허구적 사건의 그럴듯한 껍진성에 매달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분단전쟁 이후 1950, 60년대의 한국사회의 혼란기를 영화화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한 시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영화 <허삼관>에서 아쉬운 부분은 원작에 대한 번안의 충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안이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태도의 부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서로 다른 현대사에 대한 차이와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허삼관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의미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 영화 <허삼관> 중에서



#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

## 한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하나님의 뜻 찾기

• 지은이 | 이만열 • 출판사 | 포이에마 • 쪽 수 | 424쪽



지독히도 성실한 역사가의 손으로 쓴  
우리 시대의 초상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의  
시대 읽기, 하나님의 뜻 찾기

제8대 국사편찬위원장(2003-2006)을 지낸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는 무척이나 성실한 기록자로 정평이 나 있다. 신군부에 의해 해직되어 미국에 체류하던 1982년 이후 30여 년에 걸쳐 꼬박꼬박 일기를 써왔고, 해외여행 중에도 매일 밤 노트북을 열고 40-50매의 글을 남긴다고 한다.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에는 그런 이만열 교수가 깐깐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살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4·19혁명, 7·4남북공동선

언, 멀게는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2·8 독립선언 같은 우리 근현대사의 변곡점에서부터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 2012년 대선, 역사교과서 논쟁, 그리고 목회자의 논문 표절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사건과 인물들을 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숙고한다.

책에는 신문과 잡지 기고문, 강연문과 설교 원고, 페이스북에 쓴 글 등 모두 62편의 글이 갈무리되어 있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글(1부), 우리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들어가면서 역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글(2부),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젊은 시절의 독서 편력 등을 기록한 개인적인 고백(3부),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글(4부), 옥한흠 목사, 안병무 박사, 손양원 목사, 김교신, 함석헌 선생 등 몇몇 인물에 관한 회고와 평(5부)의 짜임이다.

### 날짜가 적힌 글, 시대를 증언하는 소리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에는 글을 쓴 날짜가 적혀 있다. 플로피디스크에 글을 저장하던 시절을 지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거나 교체될 때마다 오래된 글들도 새 컴퓨터로 고스란히 옮겨 살아남았다. 시간적으로는 1993년에서 2015년 1월까지 20여 년에 걸쳐 있지만, 50편 정도가 2010년 이후의 시기에 집중된다. 그러니까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들어선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대에 쓰인 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4대강 사업,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통진당 해산 판결, 신은미 추방, 세월호 참사, 부정선거 논란, ‘종북’ 논란 등 굵직한 사건과 논란이 이어졌던 시기였다. 역사가는 그 수많은 사건들 중 잊히지 않는 일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시대를 증언했다.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최근 수 년 간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복기하고 우리가 역사의 진로 어디쯤 서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다.

“헛소리로 뒷북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향한 소리를 남기기로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도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이라 달았다. 소리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올림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고 반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시대를 증언하는 소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7-8쪽)

공평무사함을 기본으로 하는 사가(史家)답게 대체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담담하게 서술하지만, 때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역사의식 없이 부화뇌동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꾀하는 기회주의적 인사들을 질타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편벽됨의 장막을 깨고 나올 것을 역설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팔손이 가까운 저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현실은 변명이 궁색하고, 서글프기조차 하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발언과 실천을 계속해온 노 지사의 결기 있는 외침은, 역사에 살아있기를 바라며 외롭게 싸우는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





## 선교 130주년에 한국 교회를 돌아보다.

2015년은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에 온 지 130주년이 되는 해다.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어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아펜젤러의 이 기도는 얼마만큼 실현되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 중 하나다. 구한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번역된 성경을 읽고 회심한 이들이 있었다. 이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국 기독교의 독특함인데, 초기 한국 교회는 일방적 선교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체적 수용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교회는 문맹률을 낮추고 사회를 계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으며, 신사참배 압력에 무릎 꿇은 뼈아픈 역사도 있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에 나섰던 이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랑스런 역사도 있다. 이 책의 미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며, 거꾸로 과거의 사건과 인물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반드시 짚어준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렇게 역사와 현재가 서로 절연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함을 일깨운다. 또 한 가지, 저자는 2부와 4부에 실린 글들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명제의 참뜻을 해명한다. 지난해의 문창극 사태를 지켜보며 기독교적 역사관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독자라면, 이 글들을 통해, 기독교적 역사의식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겹겹

###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 지은이 | 안세홍 • 출판사 | 서해문집 • 쪽 수 | 192쪽



“꽃이 피어오르는 걸 끊어낸 거지.”

겹겹이 쌓인 상처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국에 남겨진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фото 에세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다. 사진작가 안세홍은 12년 동안 중국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찾아 나섰다. 할머니들과 나눈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80여 년 세월의 아픔과 한을 느끼며, 그 내면에 담

긴 고통을 사진에 담았다.

끌려감, 감금,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폭행 그리고 버려짐. 이 모든 것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겹겹의 상처로 남은 할머니들. 헤이룽장에서 베이징, 류산, 상하이, 우한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곳에서라면 어김없이 찾을 수 있는 할머니들. 여기 여덟 분의 할머니가 있다. 여기 여덟 분의 상처가 그대로 알알이 박힌 사진이 있다.

조선말도 잊은 채 고향 가족들이 보낸 사진 한 장에 의지해 평생을 살았던 이수단 할머니. 전쟁 후에 소련군을 피해 달아났지만, 더 멀리 가는 감히 도망치지 못한 채 위안소 근처에 살았던 김순옥 할머니. 오래전 한국에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 국적 회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배삼엽 할머니. 당시에도 부모 모르게 끌려갔고, 훗날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김의경 할머니. 하루라도 고향을 잊어



본 적이 없다고, 또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지도를 봤다는 김대임 할머니. 위안소 시절 받은 고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 현병숙 할머니. 갈 수만 있다면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방법이 있겠냐고 묻던 박우득 할머니, 어떻게 잊겠냐고, 위안소 그 앞을 지날 때면 천불이 난다던 박서운 할머니.

중국에 남아 있던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가 된 채 황량한 중국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모두 다섯 분만 남았다. 두 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나눔의 집>과 요양원에서 살고 있고, 세 분은 중국 샤오관과 동닝, 우한에서 고통과 시름 속에 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생긴 지 80년여 년, 전쟁으로 인해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조선인 할머니들뿐만 아니다.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심지어는 많은 일본여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일본군에게 인권을 유린당했고, 아직도 성폭력이라는 기억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겹겹이 쌓인 할머니들의 한 맺힌 가슴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 속에, 사진과 글에 담았다.

저자는 2011년부터 일본의 나고야, 오사카, 교토, 도쿄 등지에서 중국에서 할머니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강연회로 풀어내는 한편 사진전을 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도쿄 니콘살롱 전시회와 오사카 니콘살롱 전시회는 개최 취소와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전시 강행 등 파행을 거듭하는 사태를 맞았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살아 계신 동안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발표하는 ‘겹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다.



## 구한말 사대부들의 편지

• 지은이 | 권중면 • 출판사 | 책미래 • 쪽 수 | 256쪽



**고종이 폐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취음 권중면!**  
**계룡산에서 받은 아름다운 초서(草書)**  
**편지 104점과 시 7수를 통해 격변기에 살았던 조선시대 마지막 사대부들의 삶을 돌아본다!**

책은 권중면(權重冕 : 1856~1936)이 받은 서간(書簡) 세 첩을 번역한 것이다. 세 첩의 이름은 『양몽구독(梁夢舊牘)』, 『구독부여전(舊牘附餘全)』, 『구독습유건(舊牘拾遺乾)』이다. 모두 편지 104점과 시 7수가 실려 있다. 각 첩의 이름에 ‘구독(舊牘 : 옛 편지)’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보면, 받은 편지를 모아 두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첩들이 권중면이 만든 첩의 모두는 아니다. 『구독습유』에 ‘건(乾)’을 붙인 것을 보면, 원래 건(乾), 곤(坤) 두 첩으로 만들었는데 곤(坤) 첩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첩 이름에 ‘부여(附餘: 남은 편지를 붙이다)’, 또는 ‘습유(拾遺: 빠진 것을 모으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첩들을 만들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중면은 1895년 출사하여 1900년 내부(內部) 판적국장(版籍局長), 1901년 평산 군수, 1903년 중추원 의관을 거친 후, 법부(法部) 검사국장(檢事局長), 한성재판소 판사, 비서원승(秘書院丞), 시종원(侍從院) 시종, 고등재판소 판사, 법원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1904년 12월 11일 정3품 진도 군수가 되었다. 1907년 1월 29일 능주(綾州) 군수가 되어 재직하던 중 7월 20일 고종황제 폐위사건이 났다. 아들 권태훈에 의하면, 당시 권중면 부부는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였는데, 부인이 아들을 껴안고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하므로(君辱臣死) 자결하려 했지만, 3대 독자인 너를 두고 차마 죽지 못했다. 너는 이것을 알



아라.’고 했다 한다.

1910년 한일합방 후 권중면은 서울에서 충북 영동읍 금리(錦里)로 낙향했다가, 이듬해 영동읍 남당리(南堂里)로 이사했다. 그리고 1916년 11월 계룡산 끝자락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로 깊숙이 들어갔다. 상신리에 은둔한 후 권중면은 시를 지으며 소일했는데, 동학사의 만우(萬愚) 스님과도 시로써 교제했다.

권중면이 살았던 시기에는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갑오경장, 을사보호조약, 고종의 폐위, 한일합방 등이 숨 가쁘게 연이어 일어났다. 그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 한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 고종이 폐위 당하자 그는 벼슬을 버렸고, 나라가 망하자 낙향했고, 이어서 계룡산 자락에 은둔하여 자연 속에서 시를 지으며 살았다. 격변기에 그가 살았던 삶도 조선시대 마지막 사대부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역사적으로 큰 전환기였고,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그 시대의 자료는 의외로 많지 않다. 오히려 18세기나 19세기 전반보다 남은 자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전통사회와 외세 침입의 접점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모른다. 외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외세와 부딪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외세의 통치 하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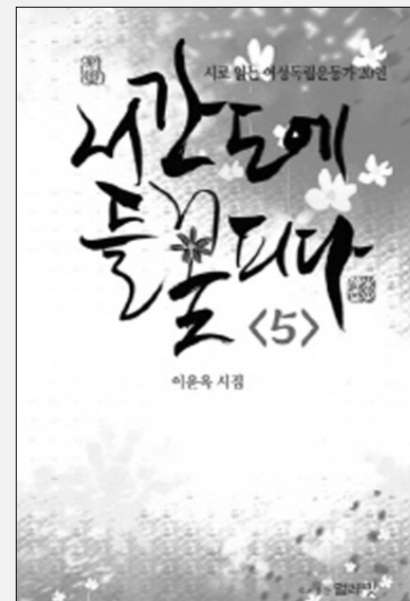
용케 남은 이 첩들이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딱 맞는 자료다. 백여 통 남짓한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진다. 재판소, 세무서, 경찰서가 만들어져 지방 수령의 권한이 분산되고, 지방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마름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앙 고관의 이야기가 있고, 고을을 무대로 날뛰는 무법자가 있고, 빚을 독촉하거나 부채에 시달리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 더 부연할 점은, 백여 년 전 조선 사대부의 가식 없는 글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조선의 마지막 사대부들이고 그들의 글씨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과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1939)는 글씨로 이름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 서간도에 들꽃 피다. 5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 지은이 | 이윤옥 • 출판사 | 엘레빗 • 쪽 수 | 206쪽



“북간도의 겨울은 빨리 찾아오나 봅니다. 9월말 용정의 명동학교를 찾아가는 길은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두껍지 않게 입고 간 옷자락을 연신 여머야 할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이의순, 이인순 애국지사는 이번 [5집]에서 다루는 분으로 이동휘 선생의 두 따님입니다. 용정하면 운동주의 고향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은 20세기 초 독립운동을 위해 몰려든 조선인들로 중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학문과 문화 수준이 높던 곳입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을 기리는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 5집을 2월 초에 펴낸 이윤옥 시인은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북간도 답사는

여성독립운동가 이의순, 이인순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길이었으며 그 내용은 이번 에 나온 신간 《서간도에 들꽃 피다》 5집에 오롯이 들어 있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자료를 찾아 시와 그 일생을 기록하는 이윤옥 시인의 다섯 번째 작품인 《서간도에 들꽃 피다》 5집에는 모두 20분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수록되어 있다.

“유달산 뒷마루에 태극기 높이 꽃은 김귀남 애국지사”는 목포 정명여학교(현, 목포정명여중)출신으로 열일곱 살의 나이에 당시 목포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졸업장도 받지 못하





고 퇴학당한 분이다. 다행히 80년만인 2001년에 명예졸업장을 만들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독립운동을 한 여성들의 활약상이 곳곳에 묻혀 있지만 알려진 이는 많지 않다.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 쓴 책이 《서간도에 들꽃 피다》이다.

“(앞줄임) 해녀의 목숨 바쳐 조국을 건질 수 있다면 / 젊은 피 어이 쏟지 않으리 /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핏빛 분노 / 햇불 되어 탐라를 비추었네” 이는 제주 해녀 출신 김옥련 애국지사에게 대한 시다. 그런가 하면 해주의 간호부 출신 김은순 애국지사를 위해서는 “(앞 줄임) 흰가운 물들인 핏빛 동산에서 / 울부짖는 독립의 외침소리 / 통곡의 강 넘어 / 빛의 고지로 이끈 열사여(뒷줄임)” 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시집의 특징은 독립운동에 뛰어든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김필수 애국지사는 노동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옥운정은 해주 기생출신으로 동료기생을 모아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의순 애국지사의 경우는 교육가로 활동 하던 분이다.

“(앞줄임) 장한 최후 맞이한 의사는 가고 / 왜놈에 끌려가 다리 부러졌어도 / 광복을 향한 몸부림은 멈출 수 없어 / 임의 희생으로 마침내 찾은 광복 / 저 세상 하늘가에서 / 김 의사도 빙그레 미소 지었으리” 이는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김상옥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이혜수 애국지사에게 관한 시다. 김상옥 열사의 거사 뒤에는 이혜수 애국지사와 같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윤옥 시인은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내 이혜련 애국지사는 도산 선생의 아내이자 동지로 독립운동에 관여한 분이다. “당신은 애국자요, 영걸의 인물로서 국가에 속한 사람이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놓고 활동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초기 미국이민의 갖은 고통 속에서도 중국 상해에 가있는 도산 선생을 뒷바라지하는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친애회를 조직하여 독립의연금 모금에 솔선수범한 이혜련 애국지사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이윤옥 시인은 말한다.

이혜련 애국지사는 특히 부인친애회를 통해 1주일에 2일(화, 금요일)은 고기 없는 [meatless] 날로 정하고, 1주일에 하루(수요일)는 간장 없는 [kanchangless] 날로 정하여



그 돈을 모아 고국에서 고통 받는 동포들을 위해 보냈다고 이윤옥 시인은 신간 《서간도에 들꽃 피다》에서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마전골 귀한 딸 고문 견디며 나라 지킨 김영순”, “평북 선천 가물남의 독립투사 박신원”, “호남의병장 남편과 함께 땀 양방매”, “평양 만세운동을 뒤흔든 채혜수”, “아홉그루 소나무 결의 다진 독립투사 전창신” 등 모두 20분의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 쓴 내용을 시와 해적이(연보)로 소개하고 있다.

곧 96돌을 맞이하는 3.1절이 다가온다. 올해는 또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치욕스런 일제강점의 역사 속에서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이윤옥 시인의 신간 《서간도에 들꽃 피다》 5집에서 질긴 생명력의 들꽃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 갑오동학농민혁명 답사기

• 지은이 | 신정일 • 출판사 | 푸른영토 • 쪽 수 | 384쪽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동학농민혁명,  
현대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

“죽음이 나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갈 역사의 길이어!”

이중환의 <택리지>를 번역한 신정일은 사람과  
땅이 어떻게 서로 살리고 서로 북돋워주는지 여  
러 권의 저서를 통해 설파해왔다. 이 책은 동학  
농민혁명의 전적지를 돌아보며 농민군이 탐관오  
리에 맞서고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자취를 찾아서 기록했다. 땅이 나의 스승이요 나  
의 몸이라는 저자의 신념을 이번에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 보여준다. 싸움의 승리를 기

억하기 위한 전적지 답사가 아니라 싸움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답사요, 역사의 기록서이  
다. 농민군의 발자취마다 남은 기쁨의 환호성과 감격의 눈물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여, 곧 세  
월과 함께 사라질 역사를 현재에 복원하고자 했다.

**“나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이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시작된 동학이 전라도에서 꽃을 피웠고, 충청도, 강원도, 황해  
도를 비롯한 전역에서 활활 타오르다가 사라져간 흔적을 찾아 신정일은 부단히 떠나고 부단  
히 돌아왔다. 남에서 북으로, 해지는 서해에서 해 뜨는 동해로, 내가 찾아 헤맨 길들이 파노  
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가 접혀졌다. 120년 전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사람이 한울인 세  
상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 땅을 걸으며 기억하고 다짐하고 지켜야 할 마음과 생각

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한울님이 계신다.”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짐승도 편안치 못하  
니 사람만 어찌 따스하고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이치와 기운이 서로 엇  
갈려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는가.”

해월 최시형의 예언대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추세이다. 현실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고 믿는다.  
농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동학사상을 다시 생각하고, 한울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  
는가 돌아보고 살펴야할 때가 지금이다.

“역사의 아픔을 품어준 조국의 산과 들”

외세에 맞서 구국의 깃발을 든 동학농민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마다 새겨진 이름들  
은 세월의 풍상에 찢겨 스러져가지만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모시러 이 세상에 왔다는 한울정  
신은 지금껏 민족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슬한 파란과 위기에서도 우리 민족이 곳곳이  
버텨온 것도 그런 사상이 피에서 피로 전해진 덕분이었을 것이다.

## 제83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



1월 8일(목) 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3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최,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후원으로 거행되었다.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민애국단에 가입한 뒤 이듬해 1월 8일 도쿄 경시청 정문 앞에서 히로 히토(裕仁)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과 가능성을 안겨줌으로써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했으며, 고인의 유해는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1946년 6월 30일 국내로 봉환돼 효창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 김상옥 의사의 일제하 서울시가전 승리 92주년 기념식



1월 2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경찰과 교전 중 순국한 한지 김상옥 의사의 ‘일제하 서울시가전 승리 92주년’ 기념식이 김상옥 의사 출신 학교인 효제초등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국가유공자 선교단체 총연합회 민승 총재의 추념사와 김상옥 의사 기록영화 상영, 김상옥 의사의 노래 찬가, 유족회와 광복회 시민들 순으로 헌화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원,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문태선, 동대문감리교회 강홍복 담임목사, 광복회장 박유철, 국가유공자 선교단체 총연합회 민승 총재, 김상옥 의사 유족회, 광복회 등과 300여명 시민들이 참석했다.

1890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상옥 의사는 1920년 10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김구, 이시영,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3년 1월 12일 일제식민통치의 근간이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으며, 5일 간격으로 사이토 총독처단을 위한 후암동 총격전과 수 백 명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등 서울시가전을 펼쳐 승리로 이끌고 마지막 한발로 자결하여 34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 계원 노백린 장군 89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노백린 장군의 89주기 추모식이 1월 22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됐다. 노백린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정관회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광복회원, 친지·종친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친회 회장의 약력 보고와 추모예배,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광복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헌화 및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1875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난 노백린 장군은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고, 고향 송화에 광무학당을 설립하는 등 구국교육운동을 전개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자 미국으로 망명하여 박용만 등과 국민군단(國民軍團)을 창설하여 300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무총리로 추대되었고, 교통과 군무총장직을 겸하며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정부는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 성재 이동휘 선생 순국 80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성재 이동휘 선생의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1월 31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동휘 선생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교육과 구국계몽운동을 펼쳤으며, 1908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하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돼 인천 무의도에 유배됐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옮겨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新韓村)을 중심으로 조직된 권업회(勸業會)에 들어가 이상설, 이갑,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해방 투쟁활동을 했다. 3·1운동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창범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가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및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79주기 추모식



2월 16일 오전 10시 청주시 낭성면 귀래리 단재 신채호선생 묘지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추모식에는 김대훈 청주보훈지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재 선생 약력 소개, 어록낭독, 헌사, 추모사 외 헌화 순서로 진행되었다.

단재 선생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민족사학의 역사학자로서 구한말부터 언론 계몽운동을 하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국민대표자회의 소집 및 무정부주의 단체에도 가담하여 활동했으며, 사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1936년 2월 21일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통일의 길, 한국여성 독립운동에서 찾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과 국가보훈처가 공동주최한 ‘통일의 길, 한국여성 독립운동에서 찾다’라는 주제의 대토론회가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전문가 패널로 신영숙(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윤정란(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원, 이방원(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윤옥(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김정아(국가보훈처) 전문관, 오일

환(보훈교육연구원) 원장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패널로 9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한국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진정한 독립, 광복의 완성, 통일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5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 1월      | 2월      | 회원명   | 1월      | 2월      | 회원명 | 1월     | 2월     |
|-----|---------|---------|-------|---------|---------|-----|--------|--------|
| 강재욱 | 20,000  | 20,000  | 박인석   | 10,000  | 10,000  | 이 철 | 10,000 | 10,000 |
| 강찬모 | 20,000  | 20,000  | 박재민   | 10,000  | 10,000  | 이학노 | 20,000 | 20,000 |
| 곽태원 | 50,000  | 50,000  | 박정근   | 30,000  | 30,000  | 이학효 | 10,000 | 10,000 |
| 권경업 | 50,000  | 50,000  | 박형순   | 10,000  | 10,000  | 이향중 | 30,000 | 30,000 |
| 권영관 | 10,000  | 10,000  | 반병률   | 10,000  | 10,000  | 이현배 | 30,000 | 30,000 |
| 길사원 | 10,000  | 10,000  | 해진스님  | 10,000  | 10,000  | 이현진 | 10,000 | 10,000 |
| 김광림 | 30,000  | 30,000  | 배해원   |         | 30,000  | 이해준 | 20,000 | 20,000 |
| 김광재 |         | 5,000   | 백낙청   | 10,000  | 10,000  | 이화순 | 30,000 | 30,000 |
| 김동현 | 10,000  | 10,000  | 변병식   | 100,000 | 100,000 | 이호현 | 20,000 | 20,000 |
| 김률근 | 10,000  | 10,000  | 방인섭   | 30,000  | 30,000  | 이후삼 | 10,000 | 10,000 |
| 김명철 | 10,000  | 10,000  | 서동희   | 5,000   | 5,000   | 임재경 | 10,000 | 10,000 |
| 김봉현 | 30,000  | 30,000  | 서봉수   | 10,000  |         | 임진택 | 5,000  | 5,000  |
| 김삼웅 | 20,000  | 20,000  | 서홍관   | 30,000  | 30,000  | 임형진 | 10,000 |        |
| 김성배 | 10,000  | 10,000  | 성인제약㈜ | 100,000 | 100,000 | 장두영 | 10,000 | 10,000 |
| 김선군 | 10,000  | 10,000  | 신경숙   | 10,000  | 10,000  | 장두원 | 20,000 | 20,000 |
| 김성곤 | 10,000  | 10,000  | 신명식   | 10,000  | 10,000  | 장채령 | 10,000 |        |
| 김성록 | 10,000  | 10,000  | 신영연   | 10,000  | 10,000  | 전영복 | 10,000 | 10,000 |
| 김소중 | 10,000  |         | 심재권   | 30,000  | 30,000  | 정만기 | 30,000 | 30,000 |
| 김숙정 | 50,000  | 50,000  | 양인선   | 10,000  | 10,000  | 정범구 | 10,000 | 10,000 |
| 김영방 | 10,000  | 10,000  | 염기남   | 10,000  | 10,000  | 정지완 | 10,000 | 5,000  |
| 김영일 | 10,000  | 10,000  | 염승훈   | 10,000  | 10,000  | 정철승 | 30,000 | 30,000 |
| 김용수 | 5,000   | 5,000   | 오상균   |         | 10,000  | 정환기 | 10,000 | 10,000 |
| 김원규 | 10,000  |         | 오성근   | 10,000  | 10,000  | 조기식 | 10,000 | 10,000 |
| 김 위 | 20,000  | 20,000  | 오은주   | 20,000  | 20,000  | 조명숙 | 10,000 | 10,000 |
| 김윤수 | 30,000  | 30,000  | 오정섭   | 10,000  | 10,000  | 조세현 | 10,000 | 10,000 |
| 김자동 | 100,000 | 100,000 | 오정수   | 10,000  | 10,000  | 조영빈 |        | 10,000 |
| 김재홍 | 10,000  | 10,000  | 우상호   | 10,000  | 10,000  | 조인형 | 10,000 | 10,000 |
| 김정인 | 10,000  | 20,000  | 유기수   | 10,000  |         | 조정훈 | 30,000 | 30,000 |
| 김종규 | 10,000  | 10,000  | 유덕곤   |         | 10,000  | 조준표 | 10,000 | 10,000 |
| 김정록 | 50,000  | 50,000  | 유상수   | 10,000  |         | 조희환 | 20,000 | 20,000 |
| 김종성 | 10,000  | 10,000  | 유은숙   | 10,000  | 10,000  | 주세영 | 30,000 | 30,000 |
| 김종배 | 20,000  | 20,000  | 유원목   | 20,000  |         | 주철기 | 30,000 | 30,000 |
| 김종숙 | 10,000  | 10,000  | 유종하   | 10,000  | 10,000  | 차영조 |        | 10,000 |
| 김윤영 | 10,000  | 10,000  | 윤경자   | 20,000  | 20,000  | 천정배 | 10,000 | 10,000 |
| 김진모 | 20,000  | 20,000  | 윤종순   | 5,000   | 5,000   | 최권행 | 30,000 | 30,000 |
| 김진영 | 10,000  | 10,000  | 윤철호   | 100,000 | 100,000 | 최문성 | 10,000 | 10,000 |
| 김진현 | 50,000  | 50,000  | 윤한옥   | 10,000  | 10,000  | 최문순 | 10,000 | 10,000 |
| 김판수 | 5,000   | 5,000   | 이건웅   | 10,000  | 10,000  | 최영진 | 10,000 | 10,000 |
| 김학근 | 10,000  | 20,000  | 이계환   | 10,000  | 10,000  | 최정식 | 10,000 | 10,000 |
| 김호진 | 10,000  | 10,000  | 이규중   | 30,000  | 30,000  | 최희주 | 10,000 | 10,000 |
| 김홍수 | 10,000  | 10,000  | 이기자   | 10,000  | 10,000  | 한의석 | 10,000 | 10,000 |
| 김희선 | 10,000  | 10,000  | 이두희   | 30,000  | 30,000  | 함세웅 | 30,000 | 30,000 |
| 남만우 | 30,000  | 30,000  | 이상준   | 200,000 | 200,000 | 홍순권 | 10,000 | 10,000 |
| 노웅래 | 20,000  | 20,000  | 이상훈   | 10,000  | 10,000  | 홍용희 | 10,000 | 10,000 |
| 노수문 | 20,000  | 20,000  | 이상배   | 10,000  | 10,000  | 황인자 | 30,000 | 30,000 |
| 노시선 | 30,000  | 30,000  | 이영국   | 10,000  | 10,000  | 황용만 | 5,000  | 5,000  |
| 노영택 | 40,000  | 40,000  | 이영숙   | 10,000  | 10,000  |     |        |        |
| 민향선 | 10,000  | 30,000  | 이영후   | 30,000  | 30,000  |     |        |        |
| 박남근 | 10,000  |         | 이우재   | 10,000  | 10,000  |     |        |        |
| 박녹삼 | 10,000  | 10,000  | 이윤옥   | 20,000  | 20,000  |     |        |        |
| 박덕진 | 10,000  | 10,000  | 이응국   | 5,000   | 5,000   |     |        |        |
| 박동기 | 10,000  | 10,000  | 이일선   | 20,000  | 20,000  |     |        |        |
| 박두곤 | 10,000  | 10,000  | 이재선   | 5,000   | 5,000   |     |        |        |
| 박용규 | 10,000  | 10,000  | 이정재   | 50,000  | 50,000  |     |        |        |
| 박유진 | 10,000  | 10,000  | 이종찬   | 100,000 | 100,000 |     |        |        |
| 박은봉 | 30,000  | 30,000  | 이창복   | 20,000  | 20,000  |     |        |        |
| 박의란 | 30,000  |         | 이창윤   | 10,000  | 10,000  |     |        |        |

### 2015년 1월, 2월 특별회비

| 회원명       | 1월        | 2월        |
|-----------|-----------|-----------|
| (주)오토 오티오 | 5,000,000 | 5,000,000 |
| (주)아팩철강   | 3,000,000 | 3,000,000 |
| 송만섭       | 100,000   |           |
| 이종호       | 120,000   |           |

## ◆ 입 회 원 서 ◆

|             |  |     |            |
|-------------|--|-----|------------|
| 이 름<br>(한자) |  | 연락처 | 핸드폰<br>자 택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주 소         |  |     |            |
| 직 업         |  | 소 속 |            |
| 비 고         |  |     |            |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 CMS자동납입 신청서 ◆

|       |                                                                                                                                                                                                                                                           |          |           |
|-------|-----------------------------------------------------------------------------------------------------------------------------------------------------------------------------------------------------------------------------------------------------------|----------|-----------|
| 은행명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예금주 주민번호 |           |
| 이체희망일 |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출금시작월    | (      )월 |
| 납부금액  |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br>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원) |          |           |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 광복 제70주년 기념 사업 계획 및 후원 안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듭니다.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여 더 의미 있고 알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사 및 후원자를 소개해주실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02)3210-0411

※ 후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예금주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제11기 독립정신 답사단〉 해외 탐방

- \* 총 사업 금액(예정) : 1억원
- \* 답사 주제 :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서’ (가제)
- \* 답사 일정 : 2015년 7월 20일 전후 예정(6박 7일)
- \* 답사 장소 : 상해-가흥-해염-항주-남경-장사-광주-부산
- \* 답사 대상 : 국내외 대학(원)생 외 70명 내외
- \* 모집 예정 : 2015년 4월부터 (추후 별도 공지)

##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도서 발간

- ‘2015년도 보훈선양 학술회의· 문헌발간 지원 사업’ 대상 단체로 선정

본회는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보훈선양 학술회의· 문헌발간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발간 예정인 도서 주제는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 총 사업 금액 : 1천 7백만원

\* 후원 확정 금액 : 국가보훈처 : 7백만원





## 〈광복 70주년 기념, 독립운동 자료수집과 전시회〉 개최

### - ‘2015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대상 단체로 선정

본회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독립운동 자료수집과 전시회」라는 주제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 자료 수집과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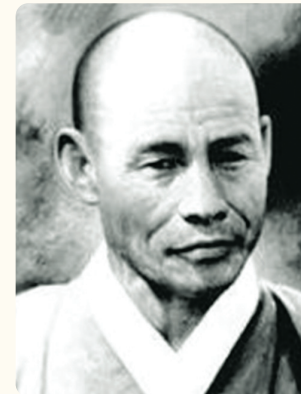
\* 총 사업 금액(예정) : 3천 4백만원

\* 후원 확정 금액 : 국가보훈처 : 1천 7백만원



##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⑪

### 한용운과 서대문형무소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 8. 29 ~ 1944. 6. 29) 선생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목격한 뒤 집을 나서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노령,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였다. 1905년 귀국 후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1910년 선생은 모순과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불교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개혁방안을 제시한 실천적 지침서인 [조선불교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하였고, 1911년 친일승려 이회광 일파가 한국

의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曹洞宗)과의 합병을 발표하자, 이를 친일매불(親日賣佛) 행위로 단정하고 송광사에서 승려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918년에는 본격적인 불교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여 불교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식민지 무단통치 아래서 민족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갔다.

1919년 선생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맡아 이종일로부터 3천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수하여 중앙학림 학생들에게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 앞에서 선생은 “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니 금후 공동협심하여 조선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 이로 인해 선생은 일경에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수감 중에도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란 논설을 집필하여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1921년 12월 21일 석방된 뒤에도 선생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민족운동을 계속하여 갔다.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상무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근대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시인으로 활동하였다. 선생은 88편의 시를 모아 1926년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고, 시조와 한시를 포함하여 모두 300여 편에 달하는 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시든 소설이든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갈구하는 자신의 심증을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우리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시인이었던 한용운 선생의 생애를 통해 조선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과 굳은 절개를 통한 의연한 민족사랑의 정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깊게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서대문형무소가 아닐까 한다.

# 100年 편지



##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0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여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세요.

[www.korea100.kr](http://www.korea100.kr)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